

“교회가 당면한 법적 문제, 저희가 돕겠습니다!”

오는 9월 9일~10일 오전 10시 LA 가든스윗호텔 ‘법과 목회 세미나’ 개최

“많은 한인교회가 법적인 소송이나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교회나 성도를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아주사 퍼시픽대학 한인 동문회(회장 승광철 목사)는 오는 9월 9일(월)부터 10일(화)까지 LA 한인타운 가든스윗 호텔에서 태평양법률협회와 함께 “당신의 교회는 안전하십니까?”란 주제로 “법과 교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인 교계와 목회자를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태평양법률협회 한국 디렉터 주성철 목사, 태평양법률협회 대표 브래드 대쿠스 대표, 태평양법률협회 상임 변호사 마이클 페퍼가 나서 △캘리포니아주 성교육 프로그램과 부모 권리 △문제 있는 교인 인도방법과 교회 안전을 위한 방해자 및 출석자 권리 △공립학교



태평양법률협회 한국 디렉터 주성철 목사(좌)와 아주사퍼시픽대학 한인동문회 회장 승광철 목사(우)

에서 합법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길 △목사, 교회, 개인의 권리 등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리는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자회견을 갖고 세미나를 소개한

주성철 목사는 “한인교회 목회자와 리더십들이 미국 법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면, 교회가 직면한 동성애 문제와 공공장소 전도, 교회 내 분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세미나를 통해 교회와 목회 현장에

서 일어날 수 있는 법적인 현안들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해법과 대처 방법을 얻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승광철 목사는 “동성애자들의 주례 부탁이나

동성애자들의 교회 등록과 사용 등의 문제에서 미주 한인교회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앞으로 찾아올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세미나 기획 동기를 밝혔다.

이번 세미나 등록은 목회자, 교회 리더 선착순 70명이며, 교제와 점심 식사를 포함한 등록비가 30달러이다.

한편 태평양 법률협회는 1997년 설립이 되어 종교의 자유, 부모의 권리, 그리고 인권 옹호를 향방하는 비영리단체로 교회나 사립학교 안에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 종교적인 믿음 때문에 제재받는 일, 종교적인 기준 때문에 교회나 비즈니스가 공격을 받는 일, 교사와 학생이 공공장소에서 믿음 때문에 제재받는 사안 등을 다루며, 특별히 목회자와 교회 성도들의 권리 및 종교 자유에 대해서 무상으로 돕고 있다. 김동욱 기자

“LA 세 번째 한인 시의원... 꿈은 이뤄진다!”



LA시의회 10지구 선거에 출마하는 그레이스 유 후보를 지지하는 로라 전 한인회장과 기금 모금 행사 참석자들

내년에 열리는 LA 시의원(제10지구) 선거에 출마하는 한인 그레이스 유 후보는 지난 28일 LA 한인타운 내 신복경에서 기금 모금 행사

를 열고 한인들의 결집과 지지를 당부했다.

그레이스 유 후보가 LA 시의원으로 당선되면 LA 시의원 15명 가운데 세 번째 한인 시의원이 배출되며, 첫 아시아계 여성 시의원이 된다.

유 후보는 “한인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주류사회에 정확히 반영하는 올바른 정치인이 될 것”이라며 “LA 지역 노숙자 문제와 저렴한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유 후보는 “10지구에 유권자 등록을 마친 한인이 8천 5백명으로 추산되지만 5천 명에서 1만 명 사이의 한인은 아직도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한인사

회의 지원과 결집만 있다면 사상 최초로 아시아계 여성 시의원으로 일할 수 있다”며 한인들의 관심과 투표를 촉구했다.

LA 제10지구는 한인타운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내년 3월 3일에 예비선거, 11월 3일에 결선을 통해 새 시의원을 선출한다.

유 후보는 “내년 3월 3일 예선을 통과해 결선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약 8천 표 정도가 필요한데, 10지구 거주하는 많은 한인들이 주변 분들에게 유권자 등록과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유권자 등록과 특히 우편 투표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모금 행사에 참석한 LA 한인회 로라 전 회장은 “그레이스 유 후보의 당선으로 LA 시의회에 3번째 한인 시의원이 탄생하는 꿈은 이뤄질 수 있다”며 “LA 한인 사회 정치력 신장을 위해 한인들의 소중한 한 표가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그레이스 유 후보는 3세 때 부모를 따라 이민 온 후 초·중·고·대학교를 LA에서 졸업한 토박이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거주 상원의원 보좌관, 비영리 법률봉사단체 아태변호사협회(APABA) 사무총장, 한미연합회(KAC) 사무국장 등으로 한인사회를 위해 봉사해 왔다.

후원 문의: 유니스 강 (213)446-0486 김동욱 기자

교수직, 안정적인 직업?
 - 한국어 잘하시는 분들 도전하세요
매월 첫째주 토요일 개강
연방정부 한국어교사(CIA)
한국어 법정통역사, 번역사
주말반 토, 일 세미나
 T:(213)999-4379 info@wpaus.com
 3407 W 6th st. #614 LA/LDA:2018047569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가격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입니다
 ■ 주일예배 : 오전 6:00 / 11:00
 ■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 수요일예배 : 오후 5:30
 ■ 금요일예배 : 오후 5:30
 ■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 (213)364-7289, (213)605-1983

35주년
 1984-2019
 하나님과 함께
감사축제
좋은마을교회(구, 삼성장로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가운데 교회사역 35년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35주년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위해 온교우들과 가까운 이웃들 그리고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 하던 중 떠난 형제, 자매들을 특별히 초청하여 기쁨과 감사를 드리며, 서로 마음을 열고 섬기는 교회에서 더욱 아름다운 섬김을 격려하며, 축복해주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잠시라도 나누길 위해 준비한 축제입니다. 진심을 담아 뜨거운 마음으로 초청합니다.
초청인
 신원규 목사, 김동진 장로, 전병일 장로, 황도성 장로, 김수성 장로, 김이집 장로, 선계원 장로, 조관국 장로, 이봉중 장로, 한기승 장로

- 1 창립 35주년 기념 축하예배**
 일시: 2019년 9월 8일(주일) 오전 11시 45분
 장소: 좋은마을교회
 특별간증: Harold Potter 변호사 / Peter Travis 집사
 (무릎 아래가 없고 로봇다리로 장애를 이기고 선교로 삶을 드리는 진정한 크리스찬)
- 2 H·K·W·(국제고아후원) 8년차 이사회 대회**
 일시: 2019년 9월 7일(토) 오후 7시
 장소: 좋은마을교회
- 3 G·M·G(영성사역훈련) 28년차 감사예배**
 일시: 2019년 9월 8일(주일) 오전 11시 45분
- 4 P·H·(3세계현직목회자훈련) 7년차 감사예배**
 일시: 2019년 9월 8일(주일) 오전 11시 45분

좋은마을교회
 The Good Village Church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문의전화 (714) 646 - 9259

내홍 겪은 얼바인침례교회 '정상화 과정' 밟게 되나?

법원 판결 바탕으로 예배와 행정 수습

담임 목사 청빙 과정에서 극심한 내분을 겪었던 얼바인침례교회가 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교회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8월 14일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담임 목사 역할을 대행해 온 데이빗 권 목사는 지난 2월 17일 선임 부목사에서 부목사로 변경됐으며, 이후 3월 15일 얼바인침례교회에서 최종 해임된 것은 적법했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데이빗 권 목사가 3월 17일 소집한 특별 제직회는 데이빗 권 목사가 더 이상 얼바인침례교회에 고용된 상태가 아니었고, 의장의 자격도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데이빗 권 목사는 3월 17일 특별 제직회를 통해 자신의 담임 목사 대행 지위를 복권하고 3명의 시무 안수집사를 해임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데이빗 권 목사가 특별 제직회를 소집할 당시 더 이상 제직회의 의장이 아니었고,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없었으며, 1주일 전에 교회 주보를 통해 교회 모든 회원들에게 알려져야 하는 조항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 지위 복권과 시무 안수 집사 해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한편 데이빗 권, 전 선임 부목사를 중심으로 한 얼바인침례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제 5대 목사 청빙을 준비해 온 박정직 원로목사와 시무 안수집사 등을 포함한 교인 4명에 대한 잠정적 제한명령(TRO)을



45년의 역사를 가진 얼바인침례교회 전경

신청해 교회의 5대 목사 취임을 3일 앞둔 지난 5월 16일,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취임을 무산시킨 바 있다.

법원은 판결에서 2018년 교회 4대 담임이었던 박경호 목사 사임 후 "데이빗 권 목사는 담임 목사가 아닌 선임 부목사로서 담임 목사 대행을 담당했으며, 3월 15일 교회 모든 직책에서 해임된 상태에서 특별제직회와 임시총회 등을 소집할 권한이 없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법원은 "비대위에서 해임된 시무 안수집사회는 적법하게 선출된 이사회 구성원이며, 비대위는 교회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기에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재확인했다.

얼바인침례교회는 이번 판결을 수용하고 교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교회는 지난 18일부터 예배를 정상화하고, 교회 내분으로 마비된 교회 행정을 수습하고 있다. 또한 적법한 교회 헌장을 따라 담임 목사 장빙위원회를 구성해 교회 안정화에 힘쓸 계획이다.

얼바인침례교회 한 교인은 "짧은 기간 동안 교회가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아픔을 겪었다"며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보듬어 주고,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본질을 구하며 회복의 길로 나아가길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남가주 교협, 미주한인재단 LA 투헤븐 선교회와 MOU 체결



복음적 장례문화 확산에 업무협약을 맺은 남가주 교협, 미주한인재단, 투헤븐선교회 관계자들

복음적 장례문화 확산에 상호 협력하기로

남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회장 한기형 목사 이하 남가주 교협)와 미주한인재단 LA (대표 이병만 장로)는 지난 27일, 투헤븐 선교회(대표 김현수 목사)와 업무 협약식을 갖고 미주 지역 복음적 장례문화 확산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남가주 교협은 투헤븐 선교회와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미주 지역에 성경적 장례 문화에 관한 유익한 정보와 장례 용품을 보급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투헤븐 선교회는 미국 내 지부 설립 및 선교 사업 확장에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기형 목사는 "미주 한인 사회의 장례문화는 한국의 유교적 또는 불교적 전통과 미국

의 기독교 전통이 혼합된 형태로 여전히 바뀌어져야 할 부분들이 많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미주 한인교회와 한인 사회에 올바른 성경적 장례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현수 목사는 "복음적 장례 예배는 장례문화 계몽과 더불어 죽음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변화시키는 매우 고무적인 운동"이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을 죽음이 아닌, 부활이기 때문에 복음적 장례문화 확산에 미주 한인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병만 장로는 "미주 한인 재단은 사회단체로, 교회를 넘어 타 종교 한인들에게도 복음적인 장례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기독교 용어로 부적합



남가주 교회협의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강의하는 김현수 목사

남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회장 한기형 목사 이하 남가주 교협)는 지난 25일, 김현수 목사(투헤븐 선교회 대표)

를 강사로 "죽음 이후에 수의를 입고 몸을 줄로 묶으며, 꽃신을 신기거나 심지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불교의 윤회 사상이

가?"라는 주제로 남가주명성교회(담임 정해진 목사)에서 천국 환송 문화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현수 목사는 기존 한국 교회 장례 문화를 지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그리스도인들의 구원과 부활에 대한 성경적 해석을 전했다.

김 목사는 "죽음 이후에 수의를 입고 몸을 줄로 묶으며, 꽃신을 신기거나 심지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불교의 윤회 사상이 담긴 표현 등 한국교회 목회자를 비롯해 기독교인조차 사머니즘, 유교, 불교적 장례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며 "장례에 대한 전통과 관습이, 천국 환송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며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천국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다. 부활이 없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라며 "한국의 장례 문화가 성경적 부활의 천

국 환송 문화로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남가주 교협 총무 안신기 목사의 사회로 김현수 목사의 강의에 이어 스미암 사회의 영적 회복과 동성애 법안 발의 저지를 위해 △조국의 분열된 사회 통합과 완전한 복해 제거를 위해 △차세대들이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 받기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합심 기도가 진행됐다.

김동욱 기자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ACCREDITED CHARITY
 BBB bbb.org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 714.738.1234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1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16992 Rudeen Lane, Fontana, CA 92336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신학교 인가(TRACS, ATS)
 •BPPE 신규 및 재승인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고봉준 목사 초청 특별간증집회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이야기의 주인공 고봉준 목사,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변화키지 못할 죄인은 없다고..." 변할 것 같지 않는 그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간증집회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고봉준 목사

약력
사마리아교정선교회 대표
아름길사랑교회 협동목사
국내외 부흥회 2000회 이상 인도
법무부 교정위원
의정부교도소 종교위원

- 집회일정**
- 9월 6일(금) PM 8:30 **올림픽 장로 교회** (담임 정장수 목사)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 9월 7일(토) AM 6:00 **기쁜 우리 교회** (담임 김경진 목사)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 9월 8일(주일) AM 11:00 **엘에이 선교 교회** (담임 장태원 목사)
3407 W. 6t, #412(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 9월 11일(수) PM 7:00 **나눔과 섬김의 교회** (담임 엘리야 김 목사)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 9월 15일(주일) AM 11:00 **엘에이 씨티 교회** (담임 씨니 김 목사)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집회문의 T:(213)739-0403

“성령의 새 바람, LA 부흥이여 다시 오라!”



하늘을 여는 찬양, 가슴을 때리는 말씀, 애통의 기도가 있는 예배로 유명한 파이어 크루세이드 집회 참석자들



동양선교교회에서 진행된 파이어 크루세이드 집회에서 설교하는 정기정 목사



파이어 크루세이드 집회를 인도하는 연합 찬양팀

파이어 크루세이드 집회, LA 동양선교교회에서 열려

“지금은 삼손이 살던 시대와 같이 세상이 성도와 교회를 비웃는 시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기보다는 적당히 세상의 비위를 맞추며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복음의 능력과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늘을 여는 찬양, 가슴을 때리는 말씀, 애통의 기도가 있는 예배로 유명한 파이어 크루세이드(FIRE CRUSADE) 집회가 지난 24일,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에서 열렸다.

엘이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크루세이드 집회는 LA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임하길 간절히 기도하는 회개와 결단의 시간이었으며, 동양선교교회, 나성영락교회, 로고스교회, HolyJoy Mission Church, 샘물교회 연합찬양팀의 뜨거운 찬

양에 이어, 정기정 목사(샘물교회)가 설교했다.

정기정 목사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삼손을 붙잡아 조롱했던 것과 같이, 오늘날의 시대는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하는 절망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다”며 “나실인으로 구별됐던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세상을 쫓아 끝없이 세속의 안락과 육체적 쾌락을 쫓다가 타락한 사건은 바로 이 시대 무너져가는 교회와 이름뿐인 성도들 이야기이다. 미주 한인 교회와 성도가 예수의 이름이 아닌, 물질과 쾌락을 따라 세상과 같은 것을 추구해왔기에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는 암흑과 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정 목사는 “역사적으로 하나님

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고통과 암흑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켰다”며 “우리 신앙이 위기 가운데 있지만 회개와 간구로 100여 년 전 LA 다운타운에서 일어났던 아주사의 부흥이 다시 한번 LA에 임하길 간절히 기도하자”라고 했다.

그는 “미주 한인교회에도 겉으로는 신앙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지옥과도 같은 어둠과 고통 가운데 있는 청년들과 교회 성도들이 많다”며 “회복의 유일한 길인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며, 세상의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과 삶을 채우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파이어 크루세이드 9월 집회는 9월 28일(토) 저녁 7시에 동양선교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그레이스미션대학교 2019 가을학기 개강 부흥회 개최

그레이스미션대학교(Grace Mission University, 최규남 총장 이하 GMU)는 지난 8월 26일부터 3일 동안 2019 가을학기 개강 부흥회를 개최했다.

“Survival에서 Revival”(생존에서 부흥으로)이라는 주제로 미라클센터 1층 채플에서 진행된 부흥 성회는 최홍주 목사(에브리데이교회), 최규남 총장,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GMU 이사장)가 “사명자의 길”, “창조의 6일”, “주님께 기억

되는 사역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각각 설교했다.

또한 학교 홍보를 위해 이번 학기 새롭게 구성된 GMU 필그림 코러스팀이 “나의 생활을 찬양으로”라는 특별찬양으로 자리를 빛냈다.

필그림 코러스팀은 현재 GMU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위해 GMU에서는 에스터 구 교수가 지도하는 “음악사역을 위한 발성 개발”(Vocal Development for Music Ministry)

과목을 개설했다.

GMU는 “교회에서 음악사역을 하고자 하는 모든 신학생들과 성도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발성의 기초와 실제 연습을 통해서 훌륭한 사역자가 되도록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GMU 학교 및 입학 관련 문은 714-525-0088, admissions@gmu.edu 이메일과 학교 홈페이지 gm.edu로 하면 된다.

이인규 기자



그레이스미션대학교 2019 가을학기 개강 부흥회에서 특별찬양하는 GMU 필그림 코러스팀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학위/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증서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다음카페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칼럼니스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복음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I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50만불 간접 투자이민 상담환영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25

“카스피창 지역에서 열린 MK(선교사 자녀) 샘물학교 보고”

필자가 섬기는 인터콥 선교회는 이미 알려진 대로 이슬람권 장기 선교사들을 1300여명 파송한 선교 단체이다. 한국에서 대학생 선교사들이 세계선교부흥의 비전을 갖고 시작하여 30여년이 지난 현재는 다민족들과 동역하는 글로벌 선교단체로 성장하였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매년 3월과 9월에 두 번 시작하는 9주간의 비전스쿨 과정이 본국은 물론 미주에만도 50여개 지부에서 동시적으로 열린다. 비전스쿨 과정을 통해 선교비전을 받은 성도들이 참여하는 단기 선교(FO)가 이 선교회의 1차 목표이다. 멀게 느껴졌던 이슬람권 현장에 직접 가서 얻는 영적 경험은 성도들의 향유의 신앙의 삶에 지대한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성도들 '거룩한 산재물'의 삶으로 바꾸어 놓는다. 이제 9월 첫 날부터 미주의 '비전스쿨'이 천여명에 이르는 스텝 봉사자들과 수백 명의 훈련자들이 어우러져 미주 전체에서 열린다.

우리 선교회의 선교 현장 사역은 다양하다. 이미 모든 사역에 다민족 리더십들이 형성되어 특히 미주의 영어권 한인 2세 리더십들과 같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다. 현장기도사역, MIT(미션 임팩트 팀)사역, 캠퍼스 한글학교 사역, 메디칼사역, AICD NGO사역, KSI(현지 국제학교)사역, 난민학교(시리아, 이라크), SM(대학생 선교), HSM(고등학교 선교사)사역 등이 비전스쿨 이후에 매년 단기선교와 함께 일어나고 있다. 그중에 우리 선교회가 큰 사명을 갖고 하는 사역중 하나가 "샘물학교"라 하는 장기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다.

우리는 몇 년 전 심각한 선교사 자녀들(MK)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물론 우리 선교 단체에 속한 자녀들만의 보고가 아니라 세계에 파송받은 2,7000명 한인 선교사들의 전체 대상에서 그 자녀들의 선교지 부족음, 탈선, 우울증, 심지어 탈기독교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진다는 충격적인 보고를 들었다. 그리고 우리 선교

회에서 곧바로 중보기도팀들이 결성되어 MK들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MK들을 선교대상으로 깨달았다.

우리 선교회는 장기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살고 있는 현지인 학교에 보낸다. 무슬림 나라, 무슬림 학교, 모두가 무슬림들인 가운데 한인 선교사 자녀들이 처해 있다. 어린 시절부터 그들은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서 빠르게 지쳐간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 선교팀들이 찾아가 그들과 같이 친구가 되고 그들의 선교적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그들로 자기들이 부모에 이끌려 힘없이 억지로 온 곳이 아닌 자기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불러 세우신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한다. 그렇다. MK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기만 하면 그들은 너무나 귀한 다음 세대의 영적 거인과 같은 선교 리더십들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샘물학교의 비전이다.

이번 8월에도 미주의 샘물학교 자원팀이 카스피창(아제르바이잔, 체첸, 다케스탄등) 지역의 MK들을 대상으로 샘물학교를 수행하고 왔다.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놀고, 땀 흘리며 막혀 있던 어린 MK들의 마음을 열게 했다. 그들은 최소 3개 국어를 한다. 한국어나 영어, 그나라 현지어 그리고 러시아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선교 귀재들이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야 한다. 회복시켜야 한다. 열방의 선교 부흥을 위해서 MK들을 향한 우리 교회의 후원과 기도 사랑과 방문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는 외친다. "MK가 살아야 열방이 산다"고.

행복을 위해 감사의 능력을 활용하라!

얼마 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에비 로빈슨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트레일러 운전기사인데, 그가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에비 로빈슨은 실명을 하였습니다. 졸지에 시력을 잃어 앞을 볼 수가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그러나 에비 로빈슨은 실명 후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저녁마다 뜰에 나가 잔디밭에 무릎 꿇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실명된 몸이나 내 생명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매일 저녁 잔디밭에 나가서 무릎 꿇고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3개월 정도 하였는데 어느날 그는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시력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눈을 뜨고 난 다음 매일같이 "저 아름다운 꽃잎들, 저 벨레 소리, 저 모든 생명,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감사가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에비 로빈슨은 자기의 차에 "하나님! 당신의 기적을 감사합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감사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감사를 고백하면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임하는 것은 물론이고 육신의 약함과 고통도 극복됩니다. 미국 마이애미대 심리학 교수 마이클 맥클로우는 "잠깐 멈춰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함을 생각해보는 순간 우리의 감정 시스템은 이미 두려움에서 탈출해 아주 좋은 상태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승리에 도취된 감정을 느낄 때와 유

사한 감정의 선순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의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들은 차고 넘칩니다.

가와카미 기이치는 2차 대전 일본 해군 장교로 참전했습니다. 일본이 패망하자 가와카미 기이치는 분노합니다. 패망한 것 자체도 분노의 대상이었지만 패망했는데도 멀쩡하게 살아가는 일본 사람들이 모두 이상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매일 부정적 태도와 절망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가와카미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온몸이 마비되는 병이 생겼습니다. 의사인 후치다 씨의 치료를 받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기이치씨 낮고 싶습니까? 낮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하겠습니까. 그럼 저를 한번 따라 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기이치는 당혹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고 결국 온몸이 마비되는 병까지 생긴 마음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계속 감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사는 오늘부터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루 만 번씩 하셔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만이 당신의 마비된 몸을 치료해줄 수 있

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강력한 의사의 권면을 듣고도 솔직히 가와카미 기이치는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감사하지 않았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가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을 고치겠다는 의지로 날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할수록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화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빠져나가니 마음이 가라앉고 평안해졌습니다. 가와카미 기이치의 표정과 태도가 변하기 시작하면서 가족들의 마음도 평안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집안 분위기도 밝아졌습니다.

어느 날 막내아들이 감나무에서 잘 익은 홍시 두 개를 따서 기이치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주는 것이니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습관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감사합니다!"하면서 감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마비되었던 손이 움직여지면서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감을 주는 막내아들도 감을 받은 아버지도 깜짝 놀랐습니다.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 기적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팔다리 그리고 온 몸체가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가져온 기적이었습니다.

행복 문화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추천하는 가장 우선되는 행복 문화는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개인, 감사하는 공동체, 감사하는 조직은 반드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행복한 교회를 원하시나요? 감사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보세요! 행복한 가정을 꿈꾸시나요? 감사하는 가정 문화를 만들어 보세요.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초 대 합 니 다

요한계시록 특강

많은 상징과 비유로 가득한 책 요한계시록! 과연 해석하기 어려운 책인가?
내 교회의 설교 담당 남상국 목사를 초청해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서 요한 계시록의 핵심을 시원하게 꿰뚫어 보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읽고 듣고 지키어 복 받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을 초대합니다.

- 일시 :** 2019년 9월 28일(토) 오전11시(1차)
2019년 10월 5일(토) 오전11시(2차)
2019년 10월 26일(토) 오전11시(마지막회)
- 장소 :** 엘에이 한인회관 일층 강당 (981 S.western Ave. Los Angeles, CA90006)
- 문의 :** T.(213)500-0328, (213)321-3933 추삼수 장로
- 주최 :** 한미동맹협의회
- 주관 :** Wmbc Inc, Be Happy Foundation
- 후원 :** Sunny's 겨우살이, 천사매실원, 황해도 교직자회, Caffee bene

150명에 한하여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각회마다 150명으로 제한 하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250불짜리 보톡스 크림을 준비 하였고, 예약이 안되신 분은 선착순으로 선물을 제공 합니다. 크림을 받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20명에 한하여 40불 짜리(10명) 선물과, 30불짜리(10명분) 선물을 제공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사 : 남상국 목사
- 내 교회 설교 목사
- 낫 놓고 기역자 몰라도 이해되는 요한 계시록 저자



“교회 본질적 모습, 한인교회에만 머무는 것 아냐”

미주 한인교회 내일의 부흥을 꿈꾼다(1) 웨스트힐장로교회 오명찬 목사



미주 한인교회의 바람직한 리더십 전환을 위한 해법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1970년대 한인 이민 인구 증가와 함께 활발하게 진행된 미주 한인교회 개척은 한인 이민이 절정에 이르렀던 1980년대 후반까지 이어졌다. 당시 개척된 한인교회는 30년에서 40여 년이 지나, 교회 개척에 중추적 역할을 감당했던 담임 목회자들의 은퇴와 다음 세대 목회자들의 위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성공적인 목회 리더십 교체에 따른 미담 사례도 있었지만, 준비 없이 맞이한 교회 리더십 교체는 교계에 적잖은 논란을 불러왔고, 그로 인해 교회와 성도들은 진통을 앓아야 했다. 이에 본보는 차세대 목회자들을 통해 앞으로 미주 한인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단하고 성공적인 교회 리더십 교체에 필요한 성경적 방안을 모색한다. -편집자 주-

웨스트힐 장로교회를 소개하는 오명찬 목사. 벨리에 위치한 웨스트힐 장로교회는 1985년 김인식 목사가 밴나이스에 개척해 1990년 웨스트힐에 위치한 현재 자처 예배당으로 이전했다. 오명찬 목사는 고은영 사모와 함께 슬하에 1녀 1남의 단란한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있다.

올해로 교회 창립 34주년을 맞는 웨스트힐장로교회는 2017년 12월, 오명찬 목사 취임으로 안정적인 목회 리더십 교체를 이룬 교회로 평가 받고 있다. 오명찬 목사로부터 그간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들어봤다.

변화의 시작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함과 목회자의 소통 의지”

혹자는 ‘목회자가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면 5년 동안은 아무것도 바꾸면 안 된다’라고 조언한다. 작은 주보 수정이나 피아노 위치 변경 때문에도 고성이 오가고, 심지어 교회가 분열되는 미주 한인 교회의 미성숙함을 드러냈던 사례가 드물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에 반해 웨스트힐장로교회는 오명찬 목사 부임 후 많은 것이 바뀌었다. 교회 주보와 교회 얼굴인 웹사이트는 물론이고 본당 의자까지 바뀌었다. 게다가 교회의 구조적 조정도 이뤄졌다. 모든 세대가 선교적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연령별 선교회가 만들어졌고, 목장은 지역별로 재개편 됐다. 교회 펠로우십도 새 가족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 확대됐다.

교회 취임 직후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오명찬 목사는 변화를 수용할 수 있었던 교회의 힘을 새벽기도에서 찾았다. 웨스트힐장로교회는 김인식 원로목사가 개척한 이후 34년 가까이 하루도 빠짐없이 365일 새벽기도를 이어오고 있다.

오 목사는 “매일 새벽기도의 영성으로 다져진 성도들의 성숙함이 교회의 화합과 결속력을 지탱케 했

다”며 “예배자로서의 신실함과 기도의 능력은 교회가 개척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분열되지 않을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리더십 전환에 따른 불협화음 없이 교회가 긍정적 변화로 나아갈 수 있었던 데에는 오 목사의 소통 의지도 크게 작용했다.

오 목사는 일을 시작하기 앞서 당회원들의 전적인 동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정도로, 성도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의미와 과정을 설명하는데 열심을 썼다. 자칫 목회자의 권위를 내세우기 쉬운 시기에, 담임 목사의 목소리를 관철시키기보다는 성도들과의 소통을 택했다.

오 목사는 “제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지만, 당회원 가운데 한 분이라도 반대를 하면 정말 추진하고 싶은 일도 내려놓는다”며 “목회자의 의지보다, 먼저는 성도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강조한다.

하나팀의 비결, 본질적 교회를 향한 ‘비전’ 공유

웨스트힐장로교회의 원만한 리더십 전환에는 교회가 가진 비전을 확고히 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선교적 교회 공동체를 향한 비전 공유가 있었다.

오 목사는 취임과 함께 3가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했다. 첫째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 둘째는 예배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복음 안에 치유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화의 삶을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

의 모임인 ‘성령 공동체’, 셋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닮아 선교에 힘쓰는 그리스도의 제자 된 ‘선교 공동체’이다.

오 목사는 교회가 본질적으로 불 들어야 할 초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하는 동시에, 담임 목회자와 리더들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닌,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를 이루고자 했다. 이를 통해 모든 성도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명확한 방향을 공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성도들과의 충분한 비전 공유는 교회 구성원 각자가 본질적 교회를 향한 능동적 변화를 수용하고 담임 목회자가 교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했다.

선교사로 사역했던 경험과 선교의 열정을 가진 오 목사는 교회 존재 목적을 선교에 뒀고, 명확한 동기과 목적을 담은 비전 공유를 통해 교회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다.

지난여름 실시한 단기선교는 청소년,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에게 선교의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를 촉구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교회 모든 연령대가 참석한 올해 단기선교에는 70세에 가까운 성도까지 함께했다.

폭력배들이 난무하고 위험요소가 많았던 남미 엘살바도르 단기선교에는 한어권과 영어권 성도들이 무려 27명이나 지원해, 현지 교회와 함께 현지어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다. 엘살바도르는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매년 들어갈 계획을 세울 정도로 성도들의 호응이 컸다.

중국 선교는 자칫 관광으로 끝나 버릴 수 있는 현지 방문 대신, 복음 화율이 0.1%도 미치지 않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8만 명의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진행해 11명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제자 훈련으로 인도됐다.

“교회의 본질적 모습, 한인교회에만 머무는 것 아냐”

오 목사는 미주 한인교회의 미래를 전망하며 “더 이상 한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닌, 주 안에서 모두가 예배하고 훈련받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이는 미주 한인교회가 주축이 되어, 영어, 중국어, 히스패닉 등 언어별로 나누어 예배를 드리는 다민족 교회가 아니라, 영어권 교회로 점차 하나 되어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민 1세가 감소하고, 이민 2세 3세들은 영어가 더 편한 세대이기 때문에 한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는 20년 또는 30년 후, 쇠퇴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웨스트힐장로교회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교회 인근 영어권 이웃 250여 명을 초청해 ‘문화 축제’를 개최하고 한인 성도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교회임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를 통해 영어권 이웃들은 웨스트힐 장로교회는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커뮤니티 교회로 알려지게 됐다.

오 목사는 “한국인들만을 기다리는 교회를 넘어 주변 영어권 사람들을 품지 않으면 당장은 드러나지 않

아도 결국은 퇴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된다”며 “한인 이민교회가 지역별로 목회 환경이 다르지만 이민자들을 돌보는 사역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한인 디아스포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미국과 전 세계의 복음화와 부흥의 밑거름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목사는 “미주 한인교회가 영어권 성도들을 담기 위해서는 한인 교회 목회자들이 당장은 힘들더라도 영어로 설교하는 능력을 기르고, 영어권 사역자들과 교류를 시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한어권, 영어권 구분 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 다음 세대를 담을 수 있는 교회로 세워나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명찬 목사는 1998년부터 필리핀 마닐라 외곽 빈민가 지역에서 4년간 어린이 및 청소년 선교사역 가운데 맺혀진 아름다운 열매들을 시작으로, 미국 보스턴과 인디애나 지역 한인교회에서 다양한 사역으로 다년간 섬긴 후, 뉴저지 초대 교회에 부목사로 7년간 청년부, 선교부, 영성 사역부, 가정 사역부, 상담 사역부, 일대일양육부, 한어 장년 공동체, 영어 장년 공동체 등을 두루 섬겼고, ‘페루 안데스 신학교’에서 부학장 및 교수로도 봉직했다.

그는 아시아 신학교에서 신학사(B.Th.) 과정을 졸업하였고, 고든-콘웰 신대학원에서 교역학 석사(M.Div.) 과정과 설교학 석사(Th.M. in Preaching) 과정을 졸업하였으며, 캔들리아 신대학원에서 선교학 철학박사(Ph.D. in Missiology) 과정을 수료했다.” 김동욱 기자

2019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p>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HE, ATS 정회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신규 목사)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p>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p>	<p>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HE, 정회원, ATS, 총회원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액 발행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김학성목사: 조경호 박사 T(626)227-3454 <p>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근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dm@aeu.edu</p>	<p>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p> <p>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p> <p>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p> <p>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s.edu</p>	<p>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p> <p>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p> <p>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p>
<p>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HE,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p>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p>	<p>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TRACS 정회원 인준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p>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p>	<p>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p> <p>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p>	<p>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p> <p>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p> <p>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p>
<p>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p>	<p>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p> <p>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p>	<p>FULLER THEOLOGICAL SEMINARY</p> <p>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p> <p>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p>	<p>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p>



모이기를 힘쓰자

히브리서 10:12-25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히브리서 10:12-25

12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뉘편에 앉으사 13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15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16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17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갈 담력을 얻었나니 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율례니라 21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22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24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받게되면 영적인 욕구가 갈급해져서 교회 가는 것이 그저 즐겁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뜨거운 눈물이 솟구치고, 목숨이라도 바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은혜 충만한 모습이며 참 마음,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것에 대한 기대도 염려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보충하신 하나님은 가장 믿음직스러운 분이시기에 우리가 믿는 구원의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3:12-14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케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예한 자가 되리라”했습니다.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모이기를 힘써서 혹여 믿지 않는 악심을 풀어 시험에 들거나, 이단의 꾀임 가운데 있거나, 악령의 유혹을 받아 좃대 없는 신앙으로 흔들리는 사람이 없는지 염려함으로 피차 권면하라고 합니다.

신명기 4:4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며 살리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그 즉시 죽읍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서로가 위로와 격려, 보살핌으로 교회를 통한 성도의 교제가 유익함을 가져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서로 돌보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고 합니다(24절). 성도의 잘못을 보았다면 곧 교회의 부끄러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가 다른 사람들이 모르도록 덮어주며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닫도록 하고, 권면하고 기도해주며 조용히 바로잡아 주게 될 때 서로 간에 인격적인 신앙으로 유대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만약 보기도 싫은 성도가 있다면 예수님이 그 사람도 피 값으로 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는 선행을 사랑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선행으로 살아가 수 있도록 동참해 주며 협동해 줄 때 그 교회는 사랑과 은혜로 그리스도의 체질로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허물과 잘못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지 못하고 신앙적 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지른 잘못으로 생각한다면

남들에게 그 허물과 잘못을 말하고 다니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교회 공동체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가족과 같다는 의식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시기의 징조가 더욱 짙어질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주 모이는 곳에 성령이 진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2:43-47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했습니다.

그저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이유는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함께 모이기 마련입니다. 영적인 소욕(所欲)은 진리와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신령한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은혜잔치에 참여하고 싶어 저절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라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지 못했을 때에는 그저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줄 알았지만, 성령을 충만히 받

고 신령한 소망의 은혜가 확실히 믿어지게 되니 이제부터 살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조건이지 돈이 아니라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신령한 영적 교제를 위하여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조건에는 뜻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그들은 세상을 초월한 사람들처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하길 원하게 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진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19-20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모여서 하나의 문제를 두고 합심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서둘러 응답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합심기도하는 목적으로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두 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18:20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구역, 전도회, 학생회등 모이기를 힘쓰는 곳에는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아무리 신앙을 잘 가꾸어 가려해도 그 사람은 결실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럿이 어울려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협동, 권면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피차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오후 4시30분 / 동부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토요일 서부오후 6시 / 동부오후 9시		AM1310 기본소리방송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교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빠르게 좋습니다.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인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능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진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핵산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43% (하지절단) 37% (미세혈관병증)등이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국가대표 재해(과학자) 송문기 박사
- 40년간 당뇨,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U.C.S.A에 대해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미 연방재해관리청명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 전화 **213.434.1170**
3020 Wilshire Blvd, #160, LA, CA 9001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가가능

SUMMER SPECIAL SALE



NEW 2019 HYUNDAI ELANTRA SE

Lease **\$148** +Tax **0 Down** **\$228**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16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5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ONATA SE

Lease **\$178** +Tax **0 Down** **\$2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3,4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4,0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TUCSON SE

Lease **\$198** +Tax **0 Down** **\$27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ANTA FE SE 2.4L

Lease **\$218** +Tax **0 Down** **\$2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6,6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See dealer for LIMITED WARRANTY details.

HYUNDAI Assurance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HYUNDAI
1-888-644-7114

담임 목사 청빙

아리조나 피닉스 서쪽에 위치한 **갈보리 한인 교회** (Calvary Korean Community Church) 에서는 20년째 담임 목회를 해오신 **조정기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있어 후임으로 오실 담임 목사님을 청빙 합니다.

■ 자격

- 1. 정규 신학 대학, 또는 대학원이상 졸업하신 분
- 2. 교단 가입에 문제가 없으신 분
- 3. 미국 체류에 법적인 문제가 없으신 분

■ 제출 서류

- 1. 이력서
- 2. 목사 안수 증명서
- 3. 최종 신학교 졸업 증명서
- 4. 자기 소개서
- 5. 최근 설교 CD
- 6. 추천서

■ 제출 방법

- 1. 청빙 위원회 이메일 (jungeun.park1014@gmail.com)
- 2. 우편 (430 N. Lewis St., Mesa AZ 85201)

■ 제출기한 : 2019년 12월 31일(화)

■ 연락 : T.(480)435-0998

**청빙 절차에 따라서 서류 심사 후 개별 통지 합니다.

갈보리 한인 교회

Calvary Korean Community Church

부목사 청빙

캘리포니아 LA 동부 Chino Hills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함께 동역하실 Full-time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www.sunhanchurch.com

1. 지원 자격

- 1) ECO(복음연합장로교 A Covenant Order of Evangelical Presbyterians, www.eco-pres.org) 교단에 속해 있거나 교단 가입이 가능하신 분
- 2) 정규 신학대학원(M.Div) 졸업자
- 3) 미국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4) 장년부 사역 유경험자

2. 모집분야

- 1) 풀타임 부목사 (1명)

3. 제출서류

- 1) 이력서 1부 (사진 첨부)
- 2) 자기소개서 1부 (신앙고백 및 간증문, 사역 및 일반 경력, 은사, 가족소개 및 사진)
- 3) 최근 1년 이내 설교(2편): 영상 파일 혹은 유튜브 링크
- 4) 추천인 2명 이름과 연락처 (이중 한 분은 이전 사역했던 교회의 담임목사님)
- 5) 신학대학원(M.Div) 졸업 및 성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목사 안수증명서 각 사본 1부

4. 지원 및 문의

- 1) 이메일 resume@sunhanchurch.com로 문의 및 지원해 주세요. 이메일로만 문의/접수를 받습니다.
- 2) 접수마감: 2019년 9월 30일까지
- 3)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비밀을 보장합니다.
- 4) 1차 서류 심사 후 면접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보해 드립니다.
- 5) 최종후보자는 원본 제출을 요구합니다.

선한목자교회

LOS ANGELES MONTEREY PARK GOLF ACADEMY

일반인·주니어를 위한 특별 맞춤 골프 프로그램

■ 대상 : 일반인·주니어 레슨(8살~18살)

■ 시간 : 평일 레슨(화~금), 주말 레슨(토)

■ 장소 : Monterey Park Golf Club (LA한인타운에서 차로 15분 거리)

- 골프 선수를 꿈꾸는 꿈나무, 대학진학 전문상담
- PGA 투어 출신 프로가 체계적인 스윙 교정, 샷 게임, 필드 레슨까지



Robert Sul
University of Las Vegas Golf Team's 2 Times 백상배 챔피언
2009 KPGA TOUR
AJGA all-American
Golf Digest Top Ten Amateur



Kenny Kim
Named 2004 Gahr High School Athlete of the Year
UC Irvine Men's Golf Team from 2004~2008
2006 PGA Tour Buick Open at Torrey Pines
2010 U.S Open at Pebble Beach
2010 PGA Tour Reno-Tahoe Open
2011 Long Beach Open(T2nd)

T:(562) 383-3566

미주 한인 교회 연합회 지도자 “볼리비아 대선 후보 정치현 목사 지지 성명” 발표

미주 한인교회 연합회 지도자들은 최근 “볼리비아 대통령 후보 정치현 박사 미주 지원 협력단”(단장 황의춘 목사 이하 협력단)을 구성하고 오는 10월 20일 예정된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현 목사(49)의 당선을 위한 미주 한인들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볼리비아 선교사인 정치현 목사는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운영위원장으로 볼리비아 지부장을 맡고 있으며 현지 대선에 기독교 민주당(PDC) 대표로 출마할 예정이다.

협력단은 “볼리비아에서 한국인 2세 정치현 박사가 야당 대통령 후보가 된 일은 대한민국 역사와 특히 160년의 이민 역사에 매우 특별하고 감사한 일”이라며 “800만 해외동포는 물론 2-3세의 해외 거주 후배들에게 무한한 도전과 가능성을 시사하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또 “정치현 목사는 사회주의를 표방한 현 정부에 반하여 확고한 기독교 자유 민주주의 이념 정당 후보로 분명한 가치를 내 걸고,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모델로 삼아 가난한 볼리비아를 잘 사는 나라로 건설하겠다는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며 “대

통령으로 당선돼 기독교 정신의 확산을 통해 침체된 볼리비아가 선진국의 대열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협력단은 이어 “정 목사는 1982년 부친을 따라 볼리비아에 이민·정착하며 의사로서 종합병원과 보건소 건축, 기독교종합대학교 설립 등 볼리비아를 향한 봉사과 구제, 헌신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분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협력단은 황의춘 목사를 대표단장으로 공동단장에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최낙신 목사, 미주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민승기 목사, 대뉴욕 교회 협의회회장 정순원 목사, 전 세기총 대표회장 장석진 목사, 김상우 목사, 김명진 목사, 이영훈 목사, 하 사무엘 목사, 이영희 목사, 최승일 목사, 한상우 목사, 양선길 목사 등으로 구성됐다.

협력단은 당선을 위해 각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하고 후원금 모금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970년 한국에서 태어난 정치현 목사는 1982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세계선교부에서 한국 기독교 백주년 기념선교사로



볼리비아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정치현 목사

파송한 정은실 선교사의 장남이다. 정은실 선교사는 볼리비아기독교대(Ucebol)를 설립해 볼리비아 복음화와 교육, 의료, 복지에 크게 기여했다.

히스패닉 선교에 힘써 온 정치현 목사는 볼리비아 하비에르국립대에서 의학을 전공한 외과의사로 볼리비아기독교대학병원장을 맡고 있는 동시에 산타크루즈 밴디선교회를 이끌고 있다.

후원 문의 : 609)510-9800
김동욱 기자

국제개혁대학교 2019년 가을학기 영성수련회 개최



국제개혁대학교 2019년 가을학기 영성수련회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IRUS, 총장 박헌성박사)은 지난 19일과 20일, 재학생과 교수, 이사들이 참석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라”는 주제로 2019년 가을학기 개강 영성수련회를 가졌다.

이번 수련회는 강사로 나선 오세택 목사(서울동부장로교회)는 첫날 “초대 교회의 모습” 둘째 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오 목사는 우리의 가슴 속에 다른 무엇이 아닌, 예수로만 다득 채울 것을 강조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고 도전했다.

영성수련회는 이번 학기 새롭게 입학한 신입생들을 소개하고, 입학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으며 WKPC 증경총회장인 이규복목사의 축도로 수련회를 마쳤다.

국제개혁대학교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교육국 BPPE와 연방정부

교육부 USDE 및 대학인준협회 CHEA 산하 기독교대학인준기관인 ABHE의 정회원 대학교이다. 또 한국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총회장 이승희 목사)와 세계예수교장로회(총회장 최인근 목사)의 인준 신학교로 강도사 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다.

입학, 편입 문의 : 전화 (213) 381-0081, 이메일 office@irus.edu, www.irus.edu 웹사이트 www.irus.edu
이인규 기자

남가주한인음악가협회 2019 Choral Festival 성황리 개최



베델교회 시온성가대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을 부르고 있다.

지난 25일(주일) 오후 6시 남가주 한인음악가협회(회장 오성애)가 나성한인교회에서 합창축제(Choral festival)를 개최했다.

이번 합창축제에는 셋별선교 합창단(지휘 오우영), 오렌지미션과 이어(지휘 장진영), 세계기도일 합창단(지휘 전현미), LA채리티콰이어(지휘 장주연), 미주 여성코랄(지

휘 오성애), 레위 남성 성가단(지휘 이경원), 보블리스 선교합창단(지휘 김철이), 베델교회(지휘 오성애), 나성한인교회(지휘 김경태), 동양선교교회(지휘 이준실) 등 10개의 교회 및 단체가 참여하여 풍성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청중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선사했다.

마지막으로 찬양대원들과 관중들이 함께 쉐넬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 '할렐루야'를 합창했으며 신동철 목사(나성한인교회)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남가주한인음악가협회는 1964년에 설립되어 2세 음악가들을 발굴하고 육성시키는 등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은진 기자

“내 이웃을 돌보아야 할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



사우스베이목사회 9월 정기모임

사우스베이 한인 목사회(회장 이상훈 목사)는 지난 4일, 남가주기쁨의교회(이항영 목사)에서 9월 예배 및 정기 모임을 개최했다.

장경일 목사의 찬양과 합심기도로 시작된 예배는 나주목 목사(울타리선교회)가 “내 이웃 돌보기”(누가복음 14장 12절-14절)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휴리스 사역 경험을 나누는 나 목사는 “휴리스를 단순히 게으르거나 약물중독에 빠진 이들로 치부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만난 휴리스들은 렌트비를 내지 못해 휴

리스가 된, 생계형 휴리스, 장애형 휴리스, 불량형 휴리스, 대물림형 휴리스 등 다양한 사연을 갖고 있다”면서 “이러한 휴리스들을 불쌍히 여길 사람은 우리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는 오는 10월 6일(주일) 토렌스 조은교회(담임 김우준 목사)에서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 주관 연합찬양제를 개최하고, 오는 11월 모임은 코너스톤교회(담임 이종용 목사)에서 가질 예정이다.

정은진 기자

미주한인기독교문인협회 제23회 기독교문학 신인상 공모

미주한인기독교문인협회 8월 월례회가 지난 25일 글로벌 비전교회(담임 방동섭 목사)에서 열렸다. 월례회 경건회는 민준기 목사의 사회로 송인목사가 “우리의 출입”(시편 121:5-8)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고영준 목사가 축도했다.

이어진 문학수업은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고영준 목사가 “글쓰기는 자기 해방이다”라는 주제로 인도했으며, 시인 및 회원들이 장은순 시인의 산문시 “마음의 본원”에 대한 감상

평을 나눴다. 한편 미주한인기독교문인협회는 제23회 기독교문학 신인상을 공모한다.

응모는 시, 시조, 동시 각 10편 이상, 단편소설 2편 이상, 희곡 2편 이상, 평론 2편 이상 중 각 부분의 미발표 작품을 약력 및 사진과 함께 보내면 된다. 신인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이 수여된다. 마감일은 오는 12월 31일까지며 보낼 곳은 이메일 kclwusa@gmail.com 이다.

정은진 기자

한장총 송태섭 대표회장 초청 조찬기도회...미주 장로교의 날 추진



이날 참석한 주요 목회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송태섭 대표회장(첫 줄 왼쪽 네번째)는 이날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위한 기도를 특별히 미주 한인교회에 요청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송태섭 목사)가 장로교의 정체성과 본질 회복을 위해 매년 진행하고있는 “장로교의 날”이 미주에서도 추진될 예정이다.

한장총 미동부지역연합회(회장 박태규 목사)는 24일 오전 8시 금강산 연회장에서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환영 및 조찬기도회”를 열고 미국의 부흥과 한국의 정치 안정을 위한 구국기도를 진행하는 한편, 이어진 임원회의에서 “미주 한인 장로교의 날”을 제정하기로 했다.

미주 내에 장로교단들 한 곳에 모이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미주 한인 장로교의 날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활동해 왔던 각 미주 한인 장로교회들이 정체성을 돌아보고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장총은 현재 미서부와 동부에 각각 지역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날 조찬기도회는 김진화 목사(미동부지역연합회 사무총장) 사회로 박태규 목사 대표회장 소개, 송병기 목사(뉴욕교협/뉴욕목사회 총경회장) 환영사, 이준성 목사(뉴욕목사회 부회장) 대표기도, 김희숙 목사(뉴욕전도협회장), 김경열 목사(뉴욕영안교회),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합심기도 인도, 정순원 목사(뉴욕교협 회장) 축도, 한재홍 목사(뉴욕교협 증경회장) 식사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송병기 목사는 환영사에서 “미주 장로교의 연합을 도모하기 위해 뉴욕을 찾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한국의 장

로교회와 미주 한인 장로교회들이 연합의 본을 보이며 서로 교류하는 귀한 장이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태섭 대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교회를 향한 쓴소리 후 미주교회들이 한국의 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줄 것을 요청해 주목을 받았다. 송태섭 대표회장은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은 짚어야 할 때 지 못하는 병어리, 머리 깎인 삼손과 같은 영적 침체, 금과 은은 많은데 예수님이 없는 것과 같다”면서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통해 동성애를 반대하지 못하게 하려해 이에 대항하는 집회를 열어도 교회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다”고 답답해 했다.

특히 송태섭 대표회장은 현재 한국의 상황과 관련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미주 한인교회들의 특별한 기도를 요청했다. 또 오는 10월 3일 대한민국을 위한 200만 명 대규모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과 기도도 함께 요청했다.

송태섭 대표회장은 집회와 관련, “지난 8월15일 20만명이 서울역과 남대문 시청에 모여 대한민국을 위해 특별히 기도했지만 일반 언론들은 이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현실”이라면서 “오는 10월3일 수요일은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200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계획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미주 한인 교회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뉴욕=김대원 기자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주중 영혼의 섬 예배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회차림 순경하고 스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주일예배 오전 11:00
고육부 예배 오전 11:0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토요아침예배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20(월, 수, 금)
2부예배 오전 9:45(목, 토) 오전 6:20(토)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한양사역 각 예배 15분 전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청년부/도모임(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들과 영혼이 2세로 태어날 때, 이만가지 영혼을 치료하여, 선교를 영순증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son 교차)
T. (213)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St. #412(67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1521 S. Hill St., LA, CA 90015
T. (213) 905-2228 / newchurchdtdi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현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교차로 북쪽 교차로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유초등부 오후 10:30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 오전 9:00 성인 E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12:30
청년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정세훈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대예배 1부 오전 8:00 새가족 성경공부 오후 1: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회(목) 오후 7:3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정병노 담임목사

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4-8690, (213)320-7240 Email: lasehil@21319mail.com
(87와 Westmoreland 교차 First Baptist Church 안에 있습니다.)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유년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오후 10:30
중고등부 EM 오전 12:30

정세훈 담임목사

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영양기7:21)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386-0685 www.lasaehan.com

1부예배 오전 9:00 청년부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영양부/유초등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정인호 담임목사

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249-9191, www.lajvc.webchurch.kr

1부예배 오전 8:30 EM 영아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중고등부 오전 10: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유아부, 유년 초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00

곽건성 담임목사

예향선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u@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00

박은종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1부예배 오전 09:30 김중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김중호 담임목사

예향선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u@hotmail.com

주일 1부예배(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예배(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셋예배(분당) (소세배)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말씀, 기쁨, 사랑, 영예)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387-1700 C. (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부/유아/아동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매주 화-토 오전 6:00
청년부 예배 오후 1:30

김신 담임목사

주향교회
나눔의 행복이 있는 교회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383-4951 / 4952 F. (213)383-5085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심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스치 초정신,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아부/유년부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청년대학부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은목 담임목사

평화교회
사랑과 진정으로 예배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에게 힘쓰는교회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jcc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박효우 담임목사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도회) 오후 8:00
한국학교주일 오전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주동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성령과 진리의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의 찾을 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나성교회

1620 N.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 (562) 690-0038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주동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교 세례 받아 함께 할거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org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30(토)

뉴스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 272-9126 / www.newsongcorona.com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 (토)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토) 5:30,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수요기도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圣经班: 周二晚上 七点半

치노밸리 아름다운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 (714) 461-6412



주일예배 오전 9:00 (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00 (본성전)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일새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후 1:00 EM성경공부 오후 7:30 (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지된 삶을 실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CC Academy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양청년회 오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 (818) 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성경집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 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7:30 한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 (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MP 레슨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8월 19일(토) 오전 10:00, 2부(토) 오후 1:30
9월 1일(토) 오전 10:00, 2부(토) 오후 1:30
주요성경말씀 7:30 수요예배 8:00(금)
새벽기도회 5:30 / 토 오전 6:00
158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5 새벽기도회 5:30 / 토 오전 6:00
(818) 363-5887

주안에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리서(Call),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전광훈 목사 “백석대신 제명 공고,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

“연관 없는 교단에서 이러한 행위는 문제”

예장 백석대신 총회가 지난 8월 30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이자 백석과 대신의 교단 통합을 주도했던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를 면직한다는 공고를 낸 것에 대해,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 명의의 반박 성명서가 발표됐다.

전광훈 목사 측은 “제명과 면직 공고는 본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본인과 연관 없는 교단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문제”라고 천명했다.

한기총 전광훈 목사 측은 “전광훈 목사는 예장 대신 49회 총회장으로서 백석교단과 통합을 추진했으나, 반대 측의 소송으로 총회참석 정족수 미달이 확인됐다”며 “법원은 판결문에서(서울고법 2017나2038899) 예장 백석과 대신 교단의 통합이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그러므로 총회장 전광훈 목사는 예장 백석과 아무 관계가 없는 예장 대신 총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모든 법적 권한은 전광훈 총회장에게 있다. 그럼에도 백석 총회장 이주훈 일당과 장종현 일당은 전광훈 목사를 명예훼손하기 위해 면직 공고를 했다”며 “이 사건은 그동안 대신과 백석의 통합 과정에서 장종현과 이주훈 일당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스스로 증명을 한 셈”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장종현 씨와 이주훈 씨는 대신과 백석의 통합 과정에서 교단 이름을 대신으로, 신대원 이름을 대신 신대원으로 하는 등의 결의를 총회에서 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까지 받았다”며 “장종현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씨와 이주훈 씨는 이를 무시하고 교단 이름을 전광훈 총회장과 아무런 상의 없이 파기했는가 하면, 4대 사항을 단 하나도 지킨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장종현과 이주훈은 더 이상 교단 흡수를 중지하고, 이러한 물의를 일으켜 온 것에 대해 하나님과 한국교회 앞에 정중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으로 볼 때, 예장 백석 총회는 더 이상 한국교회에서 교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교단 소속 목회자들이 목사안수를 받은 과정과 교단의 기본적 행정절차까지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한기총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전광훈 대표회장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없다”며 “단약 이 사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다면, 장종현·이주훈 씨는 언제든지 한기총에 와서 유튜브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예장 합동, 총회 이름으로 독자 대북사업 가능해져

통일부(김연철 장관)가 지난 7월 26일 예장 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을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했다고 이 교단 기관지인 기독교신문이 최근 전했다. 이에 따르면 총회통일준비위원회(위원장 이석원 목사, 이하 통준위) 임원회는 지난달 27일 모여 통일이부가 총회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석원 목사 등 통준위원들은 “드디어 총회가 독자적인 대북사업의 활로를 개척했다”고 밝혔다. 통준위는 오는 제104회 총회에 대북지원사업 예산으로 3억 원을 청원하기로 결의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기독교신문은 “민간단체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북한 공식 기관과의 협약서가 필요하다”면서 “총회는 그동안 이 협약서를 마련하지 못해 번번이 대북지원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이승희 총회장의 방북과 올해 4월 이 총회장 및 통준위원의 방북을 통해 북한 측과 긴밀히 접촉하고, 이어 통준위원들과 담당 직원의 후속조치 끝에 총회가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과의 협약서에 서명했다는 것.

이 매체는 “이전까지 총회는 총회 이름으로 대북사업을 전개할 수 없었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대북지원사업자로서 통일부에 신고만 하면 총회 이름을 내걸고 대북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승희 총회장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교단이 다른 NGO 단체 등을 통하지 않고도 (북한 관련) 일을 할 수 있도록 통일부의 허락을 받았다”며 “우선 북한에 나무를 심는 것부터 시작하려 한다. 미미하지만 일단 (대북) 창구를 열어 두었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안보 위기 무감각증에 빠진 사회 심각히 우려”

한교연 성명… “한미동맹, 전쟁 재발 막는 힘”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하 한교연)이 “안보 위기 무감각증에 빠진 우리사회 심각히 우려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한교연은 이 성명에서 “북한이 연일 한반도 전역을 사정거리에 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안보 무감각증, 무기력증에 빠진 듯한 우리 사회의 안보 위기의식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6.25 전쟁이 끝난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끊임없이 호전적인 도발을 감행해 왔다. 이를 막아내고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할 수 있었던 것은 굳건한 한미동맹 덕분이었다”며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을 억지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고 했다.

한교연은 “그러나 최근 들어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안보위기에 대한 불안감도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런 긴박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청와대는 지난 8월 22일 한미일 3각 안보



권태진 목사

공조를 목적으로 체결한 일본과의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내렸다”며 “경제문제를 안보 문제로 맞대응한 이번 결정이 과연 안보와 국익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한교연은 “작금의 위기 상황에서 한미동맹마저 흔들릴 경우 대한민국은 고립무원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한미동맹과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에 있어 과연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바르게 판단하고 시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진영 기자

“동성결혼 촬영 거부 안 된다고? 종교자유 침해”

美 법원, 크리스천 부부 손 들어줘



칼과 엔젤 라슨 부부. ©ALLIANCE DEFENDING FREEDOM

미국 법원이 동성커플 결혼식 촬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크리스천 부부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지난달 27일 보도했다.

미국 제8항소법원의 판사 3명은 지난 24일 미네소타인권행동(Minnesota Human Rights Act, MHRA)이 칼과 엔젤 라슨(Carl and Angel Larson) 부부의 종교자유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라슨 부부에 대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MHRA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영상제작업체 ‘텔레스콥미디어그룹’(Telescope Media Group)을 운영 중인 라슨 부부는 동성커플의 결혼식을 강제로 촬영하도록 했으며 MHR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미 연방지법 존 툴하이(John Tunheim) 판사는 지난 2017년 9월 차별금지법은 중립적으로 적용되며, 라슨 부부의 우려는 성숙하지 못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만 이뤄진다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동성결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백인 전용’이라고 표시한 것

과 거의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에 라슨 부부의 법률적 대리를 맡은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이 제8항소법원에 항소했고, 이 법원이 라슨 부부의 손을 들어준 것.

판결문을 작성한 항소법원의 데이비드 스트라스(David Stras) 판사는 “차별금지법은 매우 중요한 만큼, 반드시 헌법에 따라야 한다”면서 “만약 미네소타가 맞다면, 라슨 부부의 일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 MHRA의 이론대로라면, 기독교인이 무슬림 문신기술자에게 ‘나의 종교만이 유일하게 참된 종교다’라는 문신을 새겨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또 무신론자인 예술가가 복음주의교회에서 드러지는 예배에서 연주하게 해달라는 요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유롭게 신앙을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요구는 고소가 가능하다. 이는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권리의 요구와 얽혀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항소법원의 제인 켈리(Jane Kelly) 판사는 “라슨 부부는 그들의 욕구에 따라, 동성결혼이나 다른 주제에 관한 어떤 메시지라도 소통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며, 또 전혀 소통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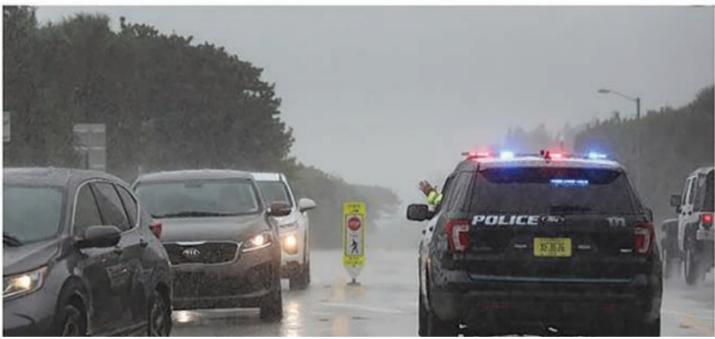
강혜진 기자

美 플로리다 기독교인들 태풍 도리안에 중보기도 요청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다고 믿어”

‘Please pray for us,’ Hurricane Dorian victim begs in Bahamas as Floridians ready for monster storm

By Leonardo Blair, Christian Post Reporter



허리케인 도리안이 플로리다 동부 연안 바하마스에 아직 머물고 있는 가운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도움과 기도를 요청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일 보도했다. 이와 더불어 바하마스의 일부 지역에 상륙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허리케인 도리안의 모습을 담은 영상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트위터 사용자 mvp242는 그레이트 아바코에서 한 어머니가 기도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어머니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탈출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현지 언론 바하마스 프레스는 “허리케인 도리안으로 인한 첫번째 희생자는 7살 난 소년, 라치노 매킨토시(Lachino Mchintoci)였다”고 전했다. 아직 그의 사망 원인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의 여동생 역시 실종된 상태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강혜진 기자

이 매체는 플로리다는 지난달 29일부터 폭풍에 대비해왔으며, 일부 기독교인들은 잭슨빌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태풍이 멈추길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리 파커(Mary Parker)는 폭스4 잭슨의 인터뷰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2년 전 허리케인 이마(Irma)가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곳에 모였다. 당시에도 우리는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면서 “비록 이 태풍으로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재산 피해도 컸으나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번 주중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허리케인급 강풍이 플로리다 동부 해안을 따라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플로리다 동부 해안 또는 이 인근이 도리안의 핵심 부분의 영향을 받을 예정이다. 주민들은 지역 공무원들을 통해 전달되는 안내 방송에 귀 기울이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한다”고 했다.

사우스베이, 토렌스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등동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아침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남가주 샬롬교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하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할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1:30
이름없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롬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령대명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영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1부예배 오전 8:0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45 101호
EM예배 오전 9:45 101호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YM청년예배 오후 2:00 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 분당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분당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cg.org

주일1부 오전 9:00 주일2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1부, 6:30/2부)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s, CA 90274
T. (310)715-9902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O. 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성경통독모임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초등부 오전 11:00 Youth/College 오전 11:00

이명익 담임목사
UBM교회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연합하는 교회
151 E.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Tel: 714-336-8995 www.ubm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평양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평양예배 오전 9:30, 11:30
한아침(한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한국어) 오전 8:00 2부(한국어) 오전 11:00 말씀묵상성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3부(영어) 오후 1:30 한국화교포)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Youth Orchestra (주말) 오후 1: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다시 복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1부예배 오전 8: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 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거주예배 매일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O)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 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 순복음교회
예수 영으로 열매를 맺는 복음공동체. ALL IN JESUS 복수제 20년 갓길 가는 예수공동체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1: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 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물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중등부, 대학청년부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안창훈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9:45 목요저녁예배: 오후 7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화-금)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설모임: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1:00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wbcsocal.com

안상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김일권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행복한 동행!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안성복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상사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람학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이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어, 유아, 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 청년 오후 12:30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749-7770 www.saemmoool.church

정기정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짐새를 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박신중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8: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청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김인철 담임목사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우대권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2부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영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c.org

김인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렌지카운터하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하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은교계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한기홍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예배 오후 7:30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경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최성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 92886
T. (714)646-9259

신원규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영어 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유초등 예배 오전 11:30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668
T. (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임경남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박훈 담임목사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PASTOR JUSTIN KI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oc.com

PASTOR HAROLD KI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PASTOR JOSEPH SUK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org

PASTOR RONNIE PARK

Sunday Services: 11:45 AM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PASTOR DAEVID YOON

Sunday Service: 2 PM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PASTOR SUNGWON 'SJ' JAHN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부르키나파소에서 기독교인 향한 공격 계속돼”



부르키나파소(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 ©구글맵

현지 사제, 기도요청

한때 북아프리카의 평화로운 국가였던 부르키나파소에서 기독교인들을 표적으로 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부르키나파소와 니제르 정교회를 대표하는 로렌트 다비레(Laurent Dabire) 사제는 이달 초 가톨릭 자선단체인 '에이드투더처치인니드(Aid to the Church in Nedd)와의 인터뷰에서 "이 지역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계속된 공격으로 기독교인들이 다 사라질 위험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서아프리카의 사헬 지역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폭력이 계속되고 있다.

다비레 사제는 지난 6월 27일 부르키나파소 북부에 위치한 와이구야 교구에서 발생한 공격이 올해 들어 5번째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바니 마을에서 발생한 공격은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있는 시간에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비레 사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마을에 도착한 후, 모든 주민들이 땅에 얼굴을 숙이도록 했다. 그리고 조사를

했는데, 4명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던 주민들을 죽인 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만약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에이드투더처치인니드'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5번의 공격으로 최소 20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도리(Dori) 및 카야(Kaya) 교구에서도 공격이 발생했다.

다비레 사제는 "처음에는 말리와 니제르 사이의 국경 지역에서만 활동하던 이들이 점차 내지로 이동하면서 군인들과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회 구조물들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그들의 주된 표적은 기독교인이며, 그들이 종교간 분쟁을 일으키려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부르키나파소 뿐 아니라 말리와 니제르와 같은 지역에서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으로 약 4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난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강혜진 기자

홍콩 시위대, 주말 시위에 이어 총파업 돌입

홍콩 10개 대학 학생회는 동행휴학 결의



홍콩 도심을 행진하고 있는 홍콩 시위대들의 모습. ©Channel 4 News 보도화면 캡처

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홍콩 시위대는 총파업과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홍콩의 10개 대학 학생회가 개학을 맞아 2주 동안 동맹휴학을 결의했다는 것.

일부 중·고교생들도 수업 거부와 침묵 시위 등의 방식으로 시위에 동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대는 이날도 공항 교통편을 막는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주말인 31일에는 검은 옷을 입은 시민 수천 명이 홍콩 주둔 인민군 사령부 건물 인근에서 "홍콩을 해방하라"고 외쳤다.

같은 시각, 센트럴역 인근에 '차이나 치라는 글이 새겨진 대형깃발이 등장했다. 시위대가 붉은 바탕에 별로 나치 상징을 그려 중국의 오성홍기를 비판한 것이라고.

또 경찰은 홍콩 중심가인 애드미럴티 정부청사 앞에서 시위대를 향해 파란색 염료가 들어간 물대포를 발사하며 진압에 나섰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앞서 경찰은 염료를 통해 시위에 참석한 시민을 색출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입법회 건물 인근에서 경찰은 시위대

에 최루탄과 물대포를 발사하며 강경 진압에 나섰다, 시위대는 경찰 측에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경찰의 특공대 투입과 실탄 발사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캐리 램 행정장관은 긴급법 발동까지 검토 중이나 시위대는 이번달은 물론 다음달 1일인 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까지 시위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이러한 가운데 영국 가디언지는 이날 홍콩인들이 과거 식민 모국인 영국에 완전한 시민권 복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1997년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기 전 약 300만명의 홍콩주민은 영국에서 거주할 권리까지 보장하는 영국부속영토 시민(BDTC)용 여권을 소지했었다.

영국의 홍콩 반환 이후 이 여권은 비자 없이 영국을 방문할 수 있으나 거주나 노동의 권리는 박탈된 영국 해외시민여권(BNO)으로 대체된 것이다.

가디언은 현재 홍콩 주민 17만 명이 BNO 여권을 갖고 있으며, 최근 몇 년 사이 이 여권을 갱신하려는 신청도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김형석 교수, 한일관계 등 문재인 정부에 ‘쓴소리’

“경제적 실정 부정하기 힘들어 친일·항일 평가르기 도움 안돼 北 정권, 이미 사회주의 정도 포기 선진국선 있을 수 없는 ‘조국 사태’”

올해 100세로 기독교계 원로인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가 최근 동아일보 칼럼에서 지난 2년여 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 최근 한일관계에서 보인 태도를 비판하고, 북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생각도 덧붙였다.

#경제
“문정부 2년의 성과 무엇인가... 국민이 묻는다”는 제목의 이 칼럼에서 김 교수는 “현 정부가 출범하고 2년여가 지났다. 그동안 국민이 기대했던 정치, 경제적 성과가 무엇이었는지 묻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많은 실득과 변명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정은 부정하기 힘들다”고 했다.

그는 “처음부터 건설적 기반 위에 성장을 쌓아 올렸어야 했다. 사회주의적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국민들에게 희망과 참여의식을 주었어야 했다. 경제공동체를 적대감과 편 가르기로 흔들어 놓았다. 민노총의 경우가 보여주는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한일관계

특히 “지금처럼 친일과 항일을 가려 평가하기 하는 자체가 미래의 조국과 아시아의 번영을 위해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한다”며 “국민감정을 함부로 몰아넣어 정치적 이득을 노린다면 애국적인 선택도 아니며 아시아 건설에 역행하는 결과가 된다. 과거를 모두 해결한 후에야 미래로 전진할 수 있다는 사고 자체가 역사의 정도(正道)가 아니다. 과거는 미래의 결과에서 해결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어떤 사람은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21세기 말쯤 되면 어떤 변화가 오겠는가. 지금의 공산정권을 완성하려는 중국은 러시아와 같은 운명에 도달하게 되며 세계 질서는 유럽, 미국과 같은 경제 정치적 방향으로 변화,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손잡는 이유는 50년쯤 후에는 세계 역사의 발전 과정이 그 길을 밟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북한
그는 또 북한에 대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동포애에 따르는 ‘친북 정신’은 지켜야 한다. 그러나 북한 정권에 대한 친북은 허용될 수 없으며 종북은 대한민국에 대한 모욕

이라며 “김일성 왕가의 북한은 이미 사회주의 국가의 정도를 포기한 정권”이라고 했다.

이어 “유엔과 자유세계가 원하는 것은, 북한 국민을 위해 북한 정권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소망스러운 길이 있다면 북한 정권 스스로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변화를 이루기를 기대해 본다. 그 과정을 위해서는 핵을 포기하고 국민들을 위해 스스로 열린사회의 길을 선택하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필자와 같이 공산주의 사회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 공산국가가 자발적으로 그 방도를 선택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그 선택은 폐쇄적인 사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가능해진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아울러 조국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면 선진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서도 안 되는 사태”라며 “지금 정부는 법만 생각하지 사회의 선한 질서는 문제 삼지 않는다. 학생들이 방학 중인데도 왜 촛불집회를 감행하는가. 우리는 적어도 저렇게는 살지 않고, 살아서도 안 되는 사회를 원한다는 애국적인 호소”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12가지 피임법? 교과서 내용 납득 못해”

한교총 ‘교과서 문제점’ 세미나 개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주요섭 목사, 허은정 대표, 박광서 목사, 정동섭 교수(성명 발표), 홍영태 목사(사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대표) ©김진영 기자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지난 달 26일 오후 서울 한국기독교교회관 조예홀에서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를 주관한 한교총 종교문화쇄신위원회(위원장 허태선 목사)는 취지문에서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 중인 교과서에 너무나 비교육적인 내용이 많은 것을 심각히 여기 이를 사회에 알리고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명을 통해 “현행 교과서에 젠더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내용들이 여과 없이 수록되어 있는 것을 다수 발견했다”며 “이는 성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하고, 동성애 옹호를 지향하게 하며, 남녀 간 혐오와 차별, 가정 파괴 등 사회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했다.

또 “현행 역사 교과서의 종교 서술 분량을 살펴보면, 이슬람교 46.1%, 불교 19%, 천주교 15.5%, 힌두교 10.4%, 정교회 6%, 개신교 3%로 이슬람 편향이 심각하다”며 특히 교과서가 “마치 이슬람 홍보나 포교 책자로 여겨질 만큼 이슬람 홍보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주요섭 목사(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 대표)는 “현재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 80여 권을 조사해 인권 및 사회적 성(젠더), 성평등, 성윤리, 성적 지향, 차별금지 등을 중심으로 살펴

본 결과, 상당수 교과서가 천부인권과 보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보다 편향되고 왜곡된 인권을 주입하고 있었다”고 했다.

주 목사는 또 “성적 정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비롯한 경우용 피임약 및 콘돔의 강조로 성관계를 부추기고,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도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발제한 허은정 대표(생명인권학부모연합)는 “초중고 전출판사 120권의 교과서를 학부모들의 자비로 구입해 분석했다”며 교과서들에 △우리 만난 지 100일인데 뽀뽀할까? △생일파티 후 함께 잘까? △나에게 맞는 12가지 피임방법 선택해보자! △말만 설거지를 시키면 부모를 인권침해로 신고하라!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 실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심각한 문제의 교과서로 배운 우리 자녀들이 한국교회와 가정,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우려된다. 우리의 다음세대들이 살아갈 나라,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며 “한국교회의 전성도, 전 국민이 깨어나 다음세대를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박광서 목사(한교총 종교문화쇄신위원회 전문위원)는 우리 교육부가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을 교과서를 통해 강조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진영 기자

‘동성애 옹호’ 혐의 장신대 학생들 관련 결의문 ‘부결’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가 4일 학생총회를 개최해 ‘재학생 목사고시 합격유보에 관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다뤘으나, 부결됐다.

이 안건은 얼마 전 예장 통합고시위원회 실행위원회가 ‘동성애 옹호’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학교 신대원 두 학생의 목사고시 합격을 보류하기로 한 결정에 대

한 것이다. 사전에 배포된 결의문안은 “피해자들의 목사안수 자격 유보 판단 근거는 불명확하다”며 “이번 처분의 주된 근거는 피해자들의 개인 SNS 활동과 불특정 경로의 정보수집에 기반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총회 임원회는 후보생 두 명에 대한 목사고시 합

격 유보를 재고할 것 △동대위(동성애대책위원회) 이번 처분에 대한 책임과 과오를 인정하고 두 후보생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표결에서 찬성 165명, 반대 38명, 기권 196명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학생총회는 재학생 868명 중 423명(49.3%)의 참석으로 개최했다. 김진영 기자

이런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타일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몸자가 될까? • 안녕하세요? 17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리스하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7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Rev. Sunja Kang Memorial Lectureship



“당신의 교회는 안전 하십니까?” 법과 교회 세미나

세상이 점점 더 혼탁해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마치 쓰나미가 밀려오듯 막강한 힘과 빠른 속도로 엄습해 옵니다. 물론 배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아주사퍼시픽대학교 한인총동문회에서는 “당신의 교회는 안전하십니까?”란 생소한 주제를 통해 “법과 신앙”, “법과 목회” 그리고 “법과 진도” 등 현재 교회와 목회에 당면한 법적인 현안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차적으로 오는 9월 9일(월)-10일(화) 양일간 “법과 교회”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Randy Sung Ju Michael Pepper, Esq. Brad Dacus, Esq.

일시: 9월9일(월)-10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장소: Garden Suite Hotel Banquet Room
 강사: 브래드 대쿠스 대표(태평양법률협회 대표), 주성철 목사(태평양 법률협회 한국인 디렉터), 마이클 페퍼 변호사(태평양 법률협회 Santa Ana Office 상임 변호사), 대상: 목회자(목사, 전도사), 교회리더 70명 선착순 등록비: \$30(교재, 점심식사 제공)

강의일정: 9일 제1강의: 캘리포니아주 성교육 프로그램과 부모권리(강사: 주성철 목사) 제2강의: 문제있는 교인 인도방법과 교회 안전을 위한 방해자 및 출석관리(강사: 마이클 페퍼 변호사)
 10일 제3강의: 목사, 교회 그리고 개인의 권익(강사: 브래드 대쿠스 대표) 제4강의: 공립학교에서 합법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길(강사: 주성철 목사)
 등록문의: (661)618-9392, (213)407-1710

주최: 아주사퍼시픽대학교 한인총동문회 AZUSA PACIFIC UNIVERSITY

RPCA 개혁장로회 한미연합총회 정기 총회 2019년

일정

- 목사 고시 2019년 9월 16일(월) 오후 10시 ~ 오후 5시
- 목사 안수식 2019년 9월 23일(월) 오후 6시

일시 : 2019년 9월 23일(월) 오후 3시 ~ 오후 8시

장소 : 나눔과 섬김의 교회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문의: T.(213)272-6031



RPCA 개혁장로회 한미연합총회

총회장 김인철 목사
총회 준비위원장 강성수 목사
총무 김엘리아 목사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2019년

예루살렘 성가단 정기연주회

Let evrytihng that has breath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2019년 9월 22일(주일) 오후 7시

장소 : 미주평안교회 본당

170 Bimini Pl, Los Angeles, CA90004



특별출연: LA여성선교합창단



단장: 김종용 목사



지휘: 조한우



피아노: 송지영



특별출연: 남기주숙명여대 동문합창단

후원문의: (213)272-6031(단장: 김엘리아 목사), (213)249-6924(총무: 김송현 집사)

학사과정

- 신학사
- 선교학사
- 기독교상담학사
- 기독교교육학사

석사과정

- 교역학석사
- 신학석사
- 선교학사
- 기독교상담학석사
- 기독교교육학석사

박사과정

- 목회학박사
- 신학박사
- 선교학박사
- 기독교상담철학박사
- 기독교교육철학박사

두 딸에게 배운 목회철학

지금 돌이켜 봐도 가슴 쓸어 내리던 순간은 우리 집 큰딸이 11학년을 마친 여름, 제 방에 들어와서 하는 말을 듣던 때입니다. “아빠, 하나님이 가라면 같게.” 생명을 걸고 뛰었던 저의 청춘 10년, 그 황금기 같은 시간을 보냈던 사역지를 뒤로 하고 캘리포니아로 가는 것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가름꾼은 큰딸의 마음이었습니다.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어렸을 때는 아빠가 섬기던 교회의 청빙을 따라 옮겨 다녔지만, 이제는 고등학교 마지막 일년을 남겨놓은 다 큰 딸에게 아빠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자고 무조건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친구들과도 있고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도 있는, 고등학교 졸업을 일 년 남긴 결정적인 시기에 말입니다. 큰 딸은 말 그대로 우리집 살림 밑천이었습니다. 아니, 저희의 목회 밑천이었습니다.

교회에 새로운 가족이 오면 그 집 아이들은 큰딸의 몫이었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그들을 맞으며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고 어느새 친구가 되어, 새로운 가족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쯤이면 아이들은 100% “이 교회 너무 좋아”라는 말을 했으니 교회 성

장에 큰 역할을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큰딸의 학교 성적표에 빠지지 않고 적혀 있던 선생님의 코멘트는 “사교성이 탁월함”이었습니다.

큰딸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녔던 앰허스트(Amherst, MA)는 대학이 몰려 있어서 자연스레 여러 나라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모인, 소위 다민족이 함께 어울려 사는 동네였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아파트 마당에서 노는 것을 보면 거의 모든 인종의 피부색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딸은 아이들의 따돌림에도 불구하고 그들 틈에 끼어 들어가 금세 친하게 지내곤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며 타고난 딸의 사교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아빠를 따라다니며 습

득한 생존을 위한 친화력이 지금 딸의 트레이드마크 (trademark)가 되어 버렸나 봅니다. 그런 딸이 정서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에 친구들을 두고 아빠를 따라 멀리 타향행을 결정한 것입니다.

11학년인 막내딸도 최근에 학교를 옮겼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부모로서 마음을 결정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제안했을 때, 딸은 흔쾌히 응해 주었습니다. 너무 쉽게 답을 하는 아이의 말에 오히려 제가 더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초조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는데, 첫 날 학교를 다녀온 막내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빠,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 아이를 넷이나 키웠지만, 학교에 다니던 우리 아이들에게서 처음으로 들은 말인 듯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새삼 깨닫게 된 저는, 두 딸로부터 저희의 목회 소신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빠, 하나님이 가라면 같게.” “아빠, 선생님이 너무 좋아.” 라는 두 딸의 말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고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겠다는 저희의 목회철학을 다시금 되새겨봅니다.

기도와 찬송의 은혜

목사는 주일에 굉장히 전투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듣고 강단에 서서 선포하는 일은, 그야말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라고 항상 영적인 전투력 게이지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토요일 밤 늦게까지 처절한 씨름 끝에 말씀의 검을 들고 강단에 서지만, 전투력 게이지가 현저히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주 가끔은 1부 예배까지 은혜롭게 예배를 잘 인도하고, 예배 후 식사 시간에 누군가가 전해주는 성도에 대한 안 좋은 소식, 교회에 오가는 부정적인 말, 그런 한 마디에 기운이 다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영적 싸움이지요.



안성복 목사
다우니제일교회

몇 주 전, 1부 예배 후에 그런 경험을 하고, 힘없이 강단에 섰습니다. 성도들에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힘없음을 제가 잘 알지요. 죄송한 마음으로 그럼에도 애써 온 몸의 힘을 짜내며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지요. 예배 중에 대표기도를 하는 장로님께서기도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기도 가운데 어느 순간 힘이 나고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지는 겁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언제나 알고는 있지만,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힘이 있구나!’ 하는 직접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 후로 조금 힘이 떨어진다. 그 후로 조금 교육관 2층에서 어슬렁거린다. 우리교회 중보기도 팀이 매 주 교육관 2층에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기도 소리를 듣다보면 잠시라도 내려앉은 마음이 힘찬 기운으로 바뀌어 집니다.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정화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어수선한 마음을 정화시키는 데는 찬양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의 고백이 찬양 가운데 담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참 좋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 영적 건강에 좋다는 것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실제 삶이 되지 못해서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아직 알지 못하기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찬양할 때 주시는 위로와 평안의 복을 아직 알지 못하기에 찬양하는 일에 주저하게 됩니다.

신앙은 기본의 반복입니다. 신앙 생활에 신비적이고, 추상적인 특별함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것이 신앙의 주된 요소가 되면 위험합니다.

마치, 태권도 고수가 아무리 고수가 되어도 정권 지르기와 앞차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처럼 기도와 찬송은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해야 할 신앙의 기본이고, 그 기본이 가장 큰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는 요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에 기도와 찬송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회색문화 회색가치

세상에는 누가 봐도 선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질병과 가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은 두 말할 필요 없이 선하고 가치 있는 일들입니다.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반면에 이 세상에는 누가 봐도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멕시코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인신매매, 장기밀매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이 악한 범죄입니다.

믿는 자들은 보다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가치 있는 일들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갈수록 보람되고, 의미 있어지고, 흥미진진해집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문화와 가치 풍속 중에는 선과 악,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과 같이 뚜렷하게 흑과 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닌 애매한 중간 단계, 회색문화, 회색가치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질, 돈이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돈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모으며 어떻게 쓰는

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에 가장 크게 쓰임 받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돈을 단순히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사회적 지위 상승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그 돈은 자신과 타인을 망칠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의 고귀한 성품과 가치관을 무너뜨릴 수 있고 개인의 이윤 때문에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돈을 ‘통화수단’과 사회에 기여하는 ‘잠여수단’으로 생각한다면, 그 돈은 사람을 구제할 수도 있고, 심지어 생명을 살려내는데 쓰임 받을 수 있습니

다. 인터넷과 휴대폰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개별한 회색문화 회색가치입니다. 인터넷과 휴대폰이 악용되면 음란물에 중독되거나 익명성을 이용하여 다른 이를 폄하하거나 악담하는 악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 어떤 백인 부인이 제가 종종 들르는 커피숍에서 성경을 펴놓고 문자 메시지를 열심히 보내고 있길래, “무일 하느냐?” 물어보았더니, 자신이 묵상한 성경말씀을 가족들과 나누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휴대폰이 사람들 간의 대화를 줄이고, 게임중독에 빠지게 하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선하고 거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이 시간이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일들을 선하게 바꾸는 것, 수많은 회색문화, 회색가치들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크리스천들만이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라 믿습니다.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포츠성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7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달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돌려받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7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 이은태 목사를 붙잡아 준 인생 말씀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이른 비의 기적 I

늦은 비의 기적 II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10)

끼니를 걱정했던 이은태 목사가 수백억에 달하는 세 개의 빌딩과 영어 학교, 뉴질랜드 최대 선교센터, 대형 쇼핑몰과 크리스천 캠프장을 운영하기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의 기적!

이은태 저음 / 1권 232면 / 13,000원
이은태 저음 / 2권 252면 / 13,000원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 전 세계 청년들을 섬기고, MEC 장학제도를 신설하여 지난 20여 년간 2,300여 명의 유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 전 세계 청년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쇠퇴하고 있는 뉴질랜드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생생히 증거한다.

홈페이지 www.qumran.co.kr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강길6 전화 745-1007 쿼란출판사

“부모를 자녀 신앙교육의 주체로 세워야”

“지난 10년간 교회학교 학생수 41% 감소, 부모 요인 가장 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29일 오후 만리현성결교회에서 한국교회 교육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박상진 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가 ‘미래사회 교회교육,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박 교수는 “교회학교 위기의 심각성은 교회학교 학생수 감소가 학령인구 감소보다 더 가파르다는 것”이라며 “지난 10년 동안 교회학교(아동부 기준)의 학생수 감소가 41.1%였는데, 그 동안의 학령인구 감소는 30% 정도였다. 교회학교 학생수가 학령인구보다 10% 이상 더 감소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교회학교 위기 요인 분석 연구’를 통해 교회교육에 위기를 불러온 요인을 크게 10가지로 꼽았는데, ‘부모 요인’이 가장 크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가정의 신앙교육 부재 △세속적 자녀교육관 △부모의 신앙저하가 교회학교 위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자녀 학업에 대한 부모의 교육관이 다음세대 신앙교육을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다”며 “이는 오늘날 교회학교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이 부모를 자녀 신앙교육의 주체로 세우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그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인격적 관계 상실 △학생 상호간의 분리: 공동체의 부재 △흥미의 부족 △교재와의 분리: 알과 삶의 괴리 △목회와의 분리: 교육부 소외



박상진 교수(왼쪽 두 번째)가 발제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지역사회와의 분리: 공공성 저하를 교회학교의 위기 요인으로 분석했다.

박 교수는 “기독교 교육은 다양한 장에서 이뤄지고, 이 교육들이 연계될 때 변화의 가능성이 극대화 되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교육은 교회, 가정, 학교 또는 지역사회를 연계해야 한다”며 “교회 안에서 이뤄지는 교육이 그것만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의 연계로 이어져 심화되고 보완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새로운 교회교육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교육 대상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며 “하나님 나라가 교회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이지만, 이는 보다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사람을 세우는 교육이 될 때 실현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이제는 담임목사가 다음세

대 분부장이 되고 교회 전체가 다음세대를 양육하는 목회구조로 재편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교회는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고 죽음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해 평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돕기 위해서는 좁은 의미의 교회생활만이 아니라 교회, 가정, 학업, 직업 등을 포함한 토털 커리큘럼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이러한 다음세대 교육은 개별 교회가 감당하기는 어렵다. 교단과 연합기관이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가능케 하는 교회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나 기업, 단체, 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연구와 개발(R&D)인데, 한국교회는 이 분야가 가장 취약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진영 기자

우리는 음란물 중독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나?

한국복음연합(TGC Korea)은 최근 미국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 러셀 무어 위원장이 ‘우리는 음란물 중독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한 인터뷰 내용을 소개했다.

영상에서 러셀 무어 박사는 “음란물 중독이 오는 몇 가지 방식이 있다. 당신은 아마도 음란물의 노예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러한 중독을 정상으로 여기는 사람일 수 있다. 만일 그렇다면, 당신이 음란물에 다시 빠질 때마다 회개한다고 해도 그것은 진정한 회개 아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음란물에 다시 빠졌다는 수치심을 다룰 뿐, 그것으로 부터 진정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만약 당신이 이러한 부류의 사람이라면 좀 더 예리하게 조언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음란물에 노예가 된 사실을 정말 두려워하며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이 죄인이며, 음란물이 흔한 죄악된 세계에 살고 있는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또 당신에게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러셀 무어 위원장은 “이러한 경우, 이를 홀로 극복하려 하지 말라. 음란물은 어두운 상황에서 더 힘을 발휘해 당신을 유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이 이 문제를 감추고 있을수록 계속 당신을 괴롭힐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

는 사람을 찾아가 당신의 문제를 고백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만약 당신이 특정한 시



러셀 무어 위원장.

간에 음란물에 더 취약하다면 누군가 당신이 그 시간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에 노출된다면, 집에 인터넷을 끊을 필요가 있다. 또 밖에 나가 있을 때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누군가 당신과 함께 있어서 당신에게 무엇인가 말해줘야 한다. 누군가 숨겨진 모든 것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으며 당신은 이것을 감출 수 없다고 말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알려 당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을 비난하거나 벌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오히려 당신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헛된 기대를 하게 만드는 모든 것으로 부터 자유케 하신다. 그러므로 소망을 버리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께 의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존 파이퍼 목사 ‘우리도 기독교 신앙에서 멀어질 수 있을까?’



존 파이퍼 목사. ©더가스펠코어리션 제공

존 파이퍼 목사가 “믿는 자들은 신앙에서 멀어질까 두려워해야 한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오늘 당장이라도 죄를 짓고 지옥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25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Desiring of God) 웹사이트를 운영 중인 파이퍼 목사는 “우리의 마음에 건강함의 의심이 있다. 최근 신앙을 떠난 목회자를 지켜보며 내게

도 이런 일이 있어날 수 있을까? 나도 아내와 멀어지고,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조언을 해달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파이퍼 목사는 “짧게 답하자면 그렇다. 또 많은 이들에게 이 질문은 영원한 (천국) 보장의 교리에 대한 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 당장 내가 배신하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

는 대답이 영원을 보장하는 교리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져선 안된다. 이것이 당신에게 부딪히는 부분인지 궁금하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파이퍼 목사는 “당신의 어떠한 행동도 당신을 구원하는 결정적 행동이나 자극을 유발하지 않는다. 당신이 느끼는 것, 당신이 생각하는 것, 당신의 의지,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고, 정하고, 부르시고, 지키시고, 영화롭게 하실 수 있는 영육간의 행위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내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질 수 없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파이퍼 목사는 그러면서 “‘스스로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신다’는 생각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경에 대한 지식과 기도, 깊은 영혼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무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다. 내가 영원한 보장을 믿는 이유다. 미리 아신 것, 미리 정하신 것, 부르심, 칭의 그리고 영화 사이에서 아무도 잃어버릴 수 없다. 이는 절대로 깨질 수 없는 보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 그러나 당신의 안전은 온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달린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신실하시면, 당신은 안전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안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다.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 외에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의 말씀들이 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다”고 설명했다.

파이퍼 목사는 “난 매일 무릎을 꿇고 ‘저를 붙들어주소서’라고 기도한다. 인류의 영혼에 남겨진 타락은 74세의 신앙인이 얼마든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도록 만들 수 있다. 당신이 하나님을 지운다면, 죄는 더욱 강력해진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오후 내게서 당신의 손길을 거둬가신다면, 난 분명 배신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닌 그분께 달려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계속해서 성경 안에 거하도록 하라. 그리고 당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믿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방법이다.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리프팅/ 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 리프팅 라인 ★ 부분 지방분해 S라인

[4회 \$999] **[8회 \$999]**

탈모

치질

감상선

당뇨

“ 만성두통, 양쪽 어깨 통증, 뒷목 땀기고 귀울림(이명),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메스꺼리고, 꿈이 많고 깊은 잠을 못 자고, 한쪽 얼굴이 감각이 없거나 눈과 입 주위에 경련, 손과 팔이 저릿저릿하고 시큰거리는 마비증, 턱관절 장애 T.M.J.”

교통사고 전문병원

-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알러지, 콧물, 코막힘, 눈가려움증, 천식
- 서해부 통증(사타구니)
- 치아 미백 파우더(3달분 \$60)
- 미용침, 아토피, 각종 피부병
- 수축이 얼음처럼 냉한 분
- 발뒤꿈치 통증, 다리 쥐어림
- 옆구리 통증(염통)
- 10일 이상 자궁출혈
-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
- 자궁이 내려앉은 증상

- 치질(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
- 자궁 물혹이나 통증(월경통, 하혈)
- 오심, 구역, 좌골 신경통, 요통, 류마티스 관절염
- 안면 신경마비, 중풍, 심근경색, 지독한 어지럼증
- 각종 위장병, 불면증, 핏갈래쉬, 불안조증, 식은땀
- 갑상선, 당뇨병, 여드름
- 다리가 저리고 땀기, 무릎통증
- 골프 엘보우, 테니스 엘보우
- 빨간 코, 붉은 얼굴, 머리 속 두드러기
- 자궁 입구 근처에 물혹, 근종 수술 안해도
- 몸 전체 중에 밖으로 나온 혹이나 지방종
- 구원산 캡슐 취급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7~25lbs

✓ 손가락

✓ 발가락

✓ 마디관절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매끼는 숙면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영선한의원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토 10시 ~ 2시

Tel 213 380 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위 아드모어)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인생의 궁극적 변화 필요하다면

독서란, 나를 발견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행위... 성경도



공부머리 독서법 최승필 책구루 | 344쪽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독서교육의 모든 것

12년 동안 저자가 아이들과 함께 독서 논술 수업을 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집약한 독서교육 지침서. 전국을 누비며 독서법 강연을 하는 전문가지만 《공부머리 독서법》에는 가정에서 실현 가능한 독서법만을 엮었다. 실제 사례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직접 효과를 본 독서법들이 알차게 채워져 있다.

사춘기 자녀가 있는 가정은 날마다 전쟁이 벌어진다. 우리는 흔히 사춘기를 '중2병'이라고 부르며, 부모에게 반항하고 짜증을 부리는 시기로 생각한다. 과장을 조금 보태 '외계인' 같다고 표현한다. 지구를 정복하려는 '외계인'과 매일 전쟁을 벌인다. 부모는 자녀의 사춘기가 잘 지나가기를 바란다. 사춘기는 급격한 정신적 성숙이 일어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사춘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아이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에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거치는 번데기 과정을 사춘기라 생각한다.

『공부머리 독서법』 저자 최승필은 대치동에서 12년째 논술을 강의하는 감사이자 독서교육 전문가다.

그는 사춘기를 경험하는 자녀의 두 가지 유형을 소개한다. 첫 번째, 질 낮은 사춘기를 보내는 아이들이다.

그들은 여기저기 마구 감정을 분출한다. "예를 들어 부모의 별 것 아닌 한마디에 버럭 성질을 부리고 제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식입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이 왜 짜증을 내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내 기분이 나쁘니 부모에게 짜증을 부려도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 자신이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엄마, 아빠가 뭘 알아?"라는 대사가 사춘기의 대명사가 된 이유다. 청소년 특유의 아집을 갖게 된다. 이런 아이들은 사춘기가 지나도 여전히 어린애처럼 생각한다.

반면 질 높은 사춘기를 보내는 아이들도 있다. 이런 아이들은 자신이 왜 이렇게 짜증이 나는지에 대해 생각한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부모의 잔소리가 왜 견딜 수 없게 됐는지를 생각하다 보면 자신이 본인의 의지가 아닌 타인의 의지대로 살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내 몸은 자라 어른이 되었는데 나의 상황은 여전히 초등학교 때와 다를 바 없다는 것, 그 괴리 때문에 짜증이 난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아이는 그 과정에서 자신을 과장 없이 의식할 수 있게 된다.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에서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고 표현했다.

새로운 변화가 있기 위해 알을 깨는 수고가 필요하다.

그냥 변화되는 것은 없다. 변화는 노력이 필요하다. 알에서 깨어나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알을 깨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노력이 없는 변화는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저자는 질 높은 사춘기를 보내는 데 필요한 것이 독서라고 이야기한다.

"언어 능력이 높다는 것은 이치에 맞게 꼼꼼하게 따져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언어능력이 높은 아이는 자신이 처한 현실, 당면한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춘기는 높은 언어능력의 기반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언어능력의 문제는 사춘기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춘기의 특징이 합리적 현실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감정적인 대처를 하게 되는 것이라면, 우리나라는 '사춘기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뉴스 대부분이 자신의 감정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벌어지는 결과들이다. 참지 못해, 인정하지 못해, 두려움과 억울함에 못 이겨 벌어지는 범죄들이 많다. 이런 특징은 질 낮은 사춘기를 보낸 아이들의 특징이다.

반대로 질 높은 사춘기를 보낸 아이들은 다르다.

"그들은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변할 수 없는 상수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틈바구니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서 합니다. 원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쟁취할 방법을 찾아 실행합니다."

언어능력은 단순히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 당면한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다."

독서를 하게 되면 언어능력이 올라가고 문제에 감정적 대처가 아닌 합리적 해결책을 찾게 된다는 말이다. 독서가 능력이 있는 이유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독서가 실패하는 제일 큰 이유가 '지식의 축적'을 위해 책을 읽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책은 생각의 도구이고 사람을 성장시키는 도구이지, 정보처리의 도구가 아니다. 진정한 지식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다.

"교과서에 나와있는 지식 대부분은 '정보'만 있을 뿐 '원인'이 부실합니다. 그런데 지식은 원인과 결과라는 두 요소가 쌍을 이루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교과서는 온전한 책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지식 가이드북 혹은 지식 카탈로그에 가깝습니다."

교과서만 보서는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저자는 독서를 할 때 읽어야 할 책을 두 종류로 구분한다. 이야기책과 지식 도서다.

"이야기책 읽기는 나를 발견하는 독서입니다. 작품을 통해 타인의 삶을 대리 경험함으로써 사람에 대해, 나에 대해 더욱 깊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지식 도서 읽기는 세상을 이해하는 독서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것이며, 왜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결국 독서란 '나를 발견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행위'인 셈입니다."

두 가지 독서가 잘 이뤄질 때 삶이 성장하는 경험을 한다. 그리스도인은 읽어야 할 책이 있다. 성경이다. 성경은 놀랍게도 이야기책과 지식 도서가 공존하는 책이다.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인생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또 책을 읽을 때는 속도보다 천천히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읽는 방법을 권한다.

저자는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책 한 권을 소개한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다. 저자는 이 책을 10번은 읽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인생이 변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읽으면 변한다. 읽을 때 제대로 읽어야 한다. 속도이나 의무로 읽는 것이 아니라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집중해서 읽어야 한다.

매년 성경 읽기를 다짐하고 강조한다. 그러나 몇 번 시도하다 포기하는 경험이 많다. 그런데도 다시 도전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을 읽음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생의 사춘기뿐 아니라, 신앙의 사춘기도 찾아온다. 하나님의 말씀 보다는 감정이 우선 될 때가 많다. 말씀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기보다는 감정적인 반응으로 잘못된 대처를 할 때가 많다.

그럴 때는 성경을 다시 펼쳐야 한다. 성경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다. 자신을 성장시키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2018년 대한민국 성인 평균 독서량은 2015년 대비 0.8권이 줄어, 8.3권으로 나타났다. 이 평균은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다.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은 서울대 학생의 1년간 1인당 대출 권수가 8.9권이라는 사실이다. 일반 성인 독서량과 별 차이가 없다.

반면 허버드는 1인당 도서 대출 권수가 98권이며, 옥스퍼드는 108권이다.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이 차이는 경쟁력의 차이로 고스란히 나타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경쟁력 차이는 무엇인가?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이 세상과 경쟁하는 우리의 무기다.

인생의 궁극적 변화가 필요하다면, 성경 읽기를 권한다.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인생의 사춘기를 방향 없이 넘어갈 수 있다.

김현수 목사
행복한나무침례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문에 한함. *헤어 컬러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컬라 전문점

헤어컬라 \$40 up \$20 up
*단, 컬러만 하시면 \$40^{up}

매직스레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된 모델의 헤어 컬러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만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u 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남미디어입니다.
 교회성경,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전도용 물티슈
 티셔츠
 메모리 카드
 머그컵 & 텀블러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한인타운 한의원

크기 **급매 1,150 sf**

문의 : (213)381-7575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문의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기독교일보와 함께하는 여행 성도간의 교제, 단합, 힐링을 위한 시간!

교회 맞춤형 힐링 여행

교회 상황에 맞추어 원하시는 날짜, 인원에게 맞게 여행 플랜을 드립니다.

9월

대추따러 출발~
대추나무 가을 여행

실버우드 레이크 보트타기 & 대추 따라가기
 실버우드 레이크(페달 보트 타기), 일식 뷔페(The W Spoon Buffet), 대추농장(대추따기)

\$99 9/21(토) 당일
 페달 보트 포함

10월

추억만들기 단풍여행 **1박 2일**

비숍 단풍

Sabrina Lake
 Mammoth Lakes (숙박)
 June Lake

\$199 10/10(목)
 1박 2일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
 Tel.213.739.0403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 chdailya@gmail.com

천 오백만원 보험가입

한국수출 1만병 기념 특가세일

Dietary Supplement

햄프함초환

대마추출 건강기능식품 SUPERFOOD PROMISE

햄프함초환은 예고없이 오는 혈관 질환, 뇌졸중, 중풍, 심장병, 치매예방, 신경정신질환, 면역질환, 뇌전증에 탁월한 건강식품! 당뇨 탈출, 숙변제거의 특효!



혈관 청소!
치매 예방

암 전이 예방!
당뇨 탈출

면역력 증강!
숙변 제거

신이 내린 항암식품!



Cannabinoids

대마추출물 Hemp Oil

많은 질병에 사용되는 유명한 자연치료제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칸나비노이드를 자극해 염증을 줄여주어 암, 뇌전증 치료와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GLA는 미국암협회가 강력 추천하는 항암 식품입니다. 대마식물에서 추출된 CBD는 중독성이 없으며 환각성을 유발하는 THC성분이 없습니다. 만성통증, 불안증 등 다양한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연구결과로 건강과 웰빙세계에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수출 1만병 기념 특가세일

햄프함초 구입시
소금 or 함초 1병 선물

1,800 환

~~\$250~~ +Tax

\$190 +Tax

MANUFACTURED IN THE USA

함초는 어디에 좋은가요?

1 높은 영양소의 보고

90여 가지의 바닷물 속 좋은 미네랄 성분이 그대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2 장에 좋다

함초는 장운동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 변비를 해소하고 장내에 쌓인 숙변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장내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능도 있어 꾸준히 섭취하면 전반적인 장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3 심혈관에 좋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과 혈관의 지방질을 배출해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4 당뇨에 좋다

함초는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해주며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 당뇨를 예방하고 증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5 간에 좋다

함초에 들어있는 콜린은 지방간이나 간경변 등과 같은 간질환을 예방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 항암에 좋다

함초에 풍부한 게르마늄은 항암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통해 함초가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을 예방하는데 크게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보고 되었습니다.

7 식이섬유가 많다

함초 100에는 약 7~8g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시금치의 10배에 달하는 양이다. 충분한 식이섬유 섭취는 혈당조절과 체중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 칼슘이 많다

함초에는 우유의 2배가 넘는 양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갱년기 여성과 노인들의 골다공증 예방, 전반적인 뼈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그 밖에도 항산화, 피부미용, 두뇌 활동 촉진 등이 있으며, 일본 오히라산장 난치병연구소 이토 소장의 보고서 '놀라운 함초의 효능'에 항염증, 항균, 갑상선 기능 증진, 기관지 건강 개선, 근육통 완화 등의 효능이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Low Sodium Salt 天然 低鹽

BAJA SEA SALT

바하천일염

청정지역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친환경 천일염으로 최고의 품질과 Kosher(코셔) 인증을 획득하여 미국과 유럽이 인정한 제품입니다.

바하천일염 4대 미네랄	일반 가공소금이 문제! (정제염 - 표소금, 맛소금)
나트륨 Na : Cl	나트륨 (Na)
칼륨 K : Cl	의사들이 소금을 먹지 말라는 이유는 나트륨만 들어있는 소금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칼슘 Ca : Cl	
마그네슘 Mg : Cl	

99.70% 미네랄 소금
최상급 천일염, NO 중금속
NO 간수



515g
바하 천일염 구입시
소금 or 함초 1병 선물 **\$30** +Tax

바다의 산삼!

BAJA GLASSWORT POWDER

바하함초분말

청정지역!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함초! 바하함초분말로 가족의 건강을 챙기세요!

풍부한 식이섬유
아미노산, 무기질
해양미네랄 함유!!!



150g
바하함초분말 구입시
소금 or 함초 1병 선물 **\$30** +Tax

*E,UM Cafe (이음카페)

☎ (213)386-3896

바하천일염, 바하함초분말
도,소매 판매합니다.



CBD BAJA HAMCHO Inc.

☎ (213)434-1170, (213)605-2772

www.hempbioussa.com hempbioussa@gmail.com
3020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한인교회를 위한 SUMMER EVENT



VBS T-Shirt

Full Color Printing

Adult \$ 7.20

Kids \$ 5.50



그 밖에도 VBS를 위한 물티슈, 가방, 배너, 포스터, 초대장 디자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CD PRINTING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프린트CD+CD봉투+라벨] 포함입니다.

BANNER



\$65

Stand X-Banner

\$140

Retractable Banner



인기 상품 A형 스탠드 배너

\$160

(디자인 포함)



3170 E. 11th Street, Los Angeles, CA 90023

323.265.0244

E-mail, junimmedia@gmail.com

4회 총신대학교 동문 남가주 체육대회

사당동과 양지 캠퍼스에서 함께 비전을 나누며 사역을 준비했던 자랑스런 남가주에 계신 모든 총신 동문들이여! 이 가을 한자리에 모여 정을 나누며 한바탕 뛰어봅시다!!!

일 시 : 2019년 9월 16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예수 커뮤니티 교회 (담임 박경일 목사)
 15246 Barnwall St, La Mirada, CA 90638
참가대상 : 총신대학교 대학부, 신학대학원, 목연, 대학원(선교, 상담...) 박사원 등 졸업생 및 가족
문의 : T. (213)507-3875(회장), (213)675-3767(총무)

총신동문 체육대회 조직

- 명예 대회장 : 김혜성, 윤성원, 최순길, 양종석
- 대회장 : 김경일
- 부대회장 : 박경일, 김미선, 민경엽, 정우성, 김선일, 신용채, 지윤성, 하요한, 남성수, 이종희
- 준비(진행)위원장 : 김선일
- 진행위원 : 서오석, 곽부환, 정충일, 신춘식, 장상근, 서은희, 오지은, 김시온
- 심 판 : 축구(양경선), 피구(장상근), 훌라후프(정우성), 족구(김광삼), 릴레이(백현)
- 행운권 추첨(50명) : TV(삼성43인치), 핸드폰, 오세미티(3박4일) 여행권, 햄프함초환, 우메켄, 한영성경책, 독서대 등등...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133:1)

대회 종목

- 1) 축구 (남 11인제, 전 후반 20분, 청백) : 총22명
- 2) 피구 (여 15인제, 단판, 청백) : 총30명
- 3) 훌라후프 돌리기 (남녀 각 10명-1, 2, 3등) : 총20명
- 4) 족구 (남 6인제, 세트 10점, 3판 2승제, 청백) : 총12명
- 5) 500m 릴레이 (남녀 총9인, 청백팀) : 총18명
 - 65세 이상(남) : 1명(50M): 2명
 - 55~64세(남녀) : 각 1명씩 2명(남100M, 여 50M):4명
 - 45~54세(남녀) : 각 1명씩 2명(남100M, 여 50M):4명
 - 44~35세(남녀) : 각 1명씩 2명(남100M, 여 50M):4명
 - 35세 이하(남녀) : 각 1명씩 2명(남100M, 여 50M):4명



총신대학교 남가주 총동문회 조직

- 고문 : 김혜성(대1회), 윤성원(신61회), 최순길(신73회), 양종석(신80회)
- 회장 : 김경일(신84회)
- 부회장 : 정우성(신83회), 김선일(신84회), 신용채(신84회), 지윤성(신86회), 하요한(신87회), 남성수(신89회), 이종희(신96회), 박경일(대77회), 김미선(대77회), 민경엽(대79회)
- 총무 : 서오석(신84회) * 부총무: 오지은(대93회)
- 서기 : 정충일(신98회)
- 회계 : 김시온(대92회)
- 감사 : 김광삼(대74회), 곽건섭(대74회)
- 분과위원회
 - *선교 분과위원장 : 이재환(신73회) *체육 분과위원장 : 김선일(신84회) *음악 분과위원장 : 장상근(대89회)
 - *홍보 분과위원장 : 양경선(대76회) *학술 분과위원회 : 이병구(신94회) *친교 분과위원장 : 백 현(신86회)
 - *의료 분과위원장 : 임정의(박1회)



총신대학교 남가주 총동문회
 CHONGSHIN UNIVERSITY

후원 : 예수서원, 컴미션, BIZPOST GROUP,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이음카페, 미주한인재단 LA, 컬러컴,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 삼호관광, 아주관광, 새한여행사, 생명의 말씀사, 기독교적, 가주장 의사, 기독교일보, 미주크리스천신문